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gional Stud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Goyang Regional Studies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문정화
김은진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gional Stud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Goyang Regional Studies

국내 지역학 현황과 고양학 발전방안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자

김은진(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저자 문정화, 김은진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36-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5
제2장 지역학 개념과 연구동향	9
제1절 지역학 개념과 관련 법률	11
제2절 지역학 연구 동향	22
제3장 고양학의 개념 및 연구동향	41
제1절 고양학의 개념	43
제2절 고양학의 필요성	47
제3절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	51
제4절 소결	71
제4장 국내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75
제1절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	77
제2절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80
제3절 소결	130

제5장 고양학 발전방안	133
제1절 고양학 연구의 발전방안	135
제2절 고양학 활성화 방안	138
제3절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143
참고문헌	149
Abstract	151

표 목차

[표 2-1] 지역학의 학문적 정의	12
[표 2-2]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15
[표 2-3] 지역학 관련 조례 현황	16
[표 2-4] 강릉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24
[표 2-5]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강원 지역 관련 학술지 리스트	26
[표 2-6] 강원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27
[표 2-7]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 현황	28
[표 2-8] 경남지역 시군별 지역학 관련 동향	29
[표 2-9] 경남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1	29
[표 2-10] 경남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2	31
[표 2-11] 군산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33
[표 2-12] 부산학 연구 주제	34
[표 2-13] 부산학을 주제로 한 연구 및 문헌	34
[표 2-14] 등재지 「인천학연구」 게재 논문 (2021)	36
[표 2-15] 인천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37
[표 2-16] 창원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39
[표 3-1] 지역별 지역학의 개념	45
[표 3-2] 고양지역 연구 동향 분석범위	54
[표 3-3] 연도별·연대별 연구 동향	57
[표 3-4] 연구 분야별·연대별 연구 동향	63
[표 3-5] 발표형태별 연구 동향	65
[표 3-6] 발표형태별·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66
[표 3-7]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전후 고양학 연구보고서 발간 수 추이	66
[표 3-8] 키워드별 연구 동향	68

[표 3-9] 비교연구 대상 지역	69
[표 3-10] 비교연구 주제	70
[표 4-1] 전국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77
[표 4-2] 제주학연구센터 연혁	81
[표 4-3] 제주학연구센터 개요	82
[표 4-4]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및 자료 발간	83
[표 4-5]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개요	85
[표 4-6] 제주학연구센터 개최 학술회의	86
[표 4-7] 제주학연구센터 업무 협약	87
[표 4-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보존 관련 근거·사업 발간	88
[표 4-9] 부산학연구소 개요	91
[표 4-10]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개요	92
[표 4-11]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선정 연구	92
[표 4-12] 부산학연구센터 학술 사업	93
[표 4-13] 부산학연구센터 협력관계	94
[표 4-14] 수원학연구센터 운영 조직 업무분장	95
[표 4-15] 수원학연구센터 개요	96
[표 4-16] 학술지 『수원학연구』 사업 개요	97
[표 4-17] 『수원학연구』 제 16호, 제17호 (2020) 연구 리스트	97
[표 4-18] 2020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99
[표 4-19]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제	99
[표 4-20] 수원학 강의 수업 커리큘럼 (2019년)	99
[표 4-21] 공주학연구원 개요	102
[표 4-22] 공주학연구원 운영 조직 업무분장	103
[표 4-23]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전략	106
[표 4-24] 공주학 아카이브 사업 진행	107

[표 4-25] 공주학 아카이브 자료 정리와 분류	108
[표 4-26] 공주학연구원 공주 양서출판 지원공모 사업	109
[표 4-27] 공주학연구원 기타 사업 (2021년)	110
[표 4-28] 서울학연구소 개요	112
[표 4-29] 서울학연구소 정기간행물 「서울학연구」 연구 현황 (2020~2021년)	113
[표 4-30] 서울학연구소 2019~2020년 서울학 연구지원 과제	115
[표 4-31] 서울학연구소 개최 학술회의	116
[표 4-32] 서울학연구소 기타 주요 사업	117
[표 4-33] 서울학연구소 협력관계	117
[표 4-34] 경기학센터 개요	120
[표 4-35] 경기학센터 운영 조직	120
[표 4-36] 경기학센터 예산	121
[표 4-37] 경기학센터 발간 간행물 (2019~2021년 현재)	122
[표 4-38] 경기학(연구)센터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 개요	123
[표 4-39] 경기학센터 교육 사업	124
[표 4-40] 경기학센터 2020년 사업 방향	125
[표 4-41] 경기학센터 추진 역점 사업	126
[표 4-42] 지역학 기관 개요 종합	127
[표 5-1] 고양학센터 목표 및 추진전략	146

그림 목차

[그림 1-1]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7
[그림 2-1] 지역학 속성	14
[그림 3-1] 연대별 연구 발표 건수	59
[그림 3-2] 연대별 연구 발표 비율	59
[그림 3-3] 분야별 연구 건수	61
[그림 3-4] 연대별·분야별 연구 건수	62
[그림 3-5] 발표형태별 연구 동향	67
[그림 4-1]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형태	82
[그림 4-2]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내 제주학아카이브 페이지	84
[그림 4-3]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내 수원학연구센터 페이지	97
[그림 4-4]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102
[그림 4-5] 공주학연구원 시설 및 공간 사용	104
[그림 4-6]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기본방향	105
[그림 4-7]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	109
[그림 4-8] 서울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113
[그림 4-9]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페이지	121
[그림 4-10] 경기학센터 협력관계	125
[그림 5-1] 고양학 발전방안	138
[그림 5-2] 고양학센터 비전과 목표	143
[그림 5-3] 고양학센터 5개년 로드맵	147

요약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고양시 인구는 고양군이었던 1990년 24만이었으나 2021년 현재 108만 8천명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 특히 외부인구의 유입이 많아 도시정체성 확립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지역학은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복원하고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정주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와 기제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고양학의 발전은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연구 동향 및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과 주요 지역학 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고양학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고양학 개념과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
- 지역학 연구동향 분석
- 고양학 개념 및 필요성 검토
-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우수 지역학센터 운영현황 검토
- 고양학 발전방안 도출

2. 지역학 개념과 연구동향

□ 지역학 개념

- 지역학이란 행정구역 또는 문화적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

□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 지역학 관련 법률로 문화 관계 법률로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고, 교육 관계 법률로는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지역학 관련 조례로는 지역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주학 연구센터, 강원학 연구센터)와 지역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용인시 등 10개 지자체)가 있음
- 용인시의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의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학 강좌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주시, 양산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지역학 관련 조례는 지역학 진흥 계획 수립과 지역학 진흥사업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업내용은 유사함

□ 지역학 연구 동향

○ 강릉학 동향

- 강릉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한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웹사이트에 상당한 분량의 강릉 아카이빙 자료 구축
- 강릉학 연구동향 분석 결과, 분석 대상이 된 474편의 강릉학 연구는 인문

학 분야 37.6%, 사회과학 분야 19.8%, 자연과학 분야 15.4%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학(7.8%), 의약학(5.5%) 예술 체육학(5.7%)로 저조,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남

- 지역의 규모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견줄 정도로 연구량이 풍부함

○강원학 동향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강원학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강원학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기본 방향으로 내세워, 강원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강원연구원 외에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강원학 연구센터 등의 강원학 연구기관이 있음.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에서는 춘천학 연구를,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에서는 원주학 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학 연구를 하고 있음
- 강원도 관련 지명 키워드로 검색하여 추출한 분석대상 논문 2,741건 중 지역사연구가 17.9%, 지역경제연구가 17.5%, 지역사회연구가 10%로 다수를 차지함
- 지역 키워드별 분류로는 강원도 전체(638건), 강릉(219건), 춘천(181건), 강릉권(109건)이 가장 다수 차지

○경남학 동향

-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는 약 35개소로 주로 대학 내 부설 연구소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경남연구원 경남학 연구센터, 경남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경상남도의회 경남학연구회, 경상대 내 연구소 다수, 인제대 내 연구소 다수, 창원대 내 연구소 다수, 민간 단체(남명학연구원, 김해남명정신문화연구원), 언론사(경남신문) 등

- 경남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21개의 경남 지역 관련 키워드를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된 1,444건의 연구 중 지역사 연구가 33.1%, 지리환경연구가 25.6%, 문화 10.7%, 사회 8.1%를 차지해 지역사, 지역환경, 문화 등 일부 분야로 편중된 양상을 보임
- 지역별 키워드 분석에서도, 창원 지역에 대한 연구량이 월등히 높아 지역별로 불균형을 보임
-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많고 지역 발전 전략 및 미래상 연구, 융합 등 거시적 관점과 거대 담론에 대한 성과가 부족

○군산학 동향

- 군산 관련 지명을 키워드로 하여 추출한 685건의 군산학 연구동향 분석 결과, 조사 시점인 1970년부터 연대를 거듭할수록 연구량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0년대에는 군산 개항 100주년(1999년)이라는 사회적 이슈 시기, 학문적 관심이 늘어 연구량 증가
-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 분야로, 소외된 학문 영역(농업 분야)과의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남
- 실증 연구보다 문헌 연구가 더 많은데, 이는 군산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탓이므로 군산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료의 발굴 및 축적 노력이 필요함

○부산학 동향

- 부산학은 우리나라 지역 연구 발전 초기부터 비교적 일찍 정착하여 발전하여 옴. 타 지역에 비해 학문으로써 부산학을 다룬 연구가 많으며, 부산학의 현황·담론·방향·전망을 심도있게 논의함
-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동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등 기관 및 단체가 부산학을 발전시켜 나

가고 있음

○ 인천학 동향

- 인천학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에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조직과 함께 주관한 인천시사 편찬 사업이 있음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은 KCI등재지인 인천학연구를 발간하면서, 넓은 분야의 전문 연구자 확보를 통하여 인천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인천을 검색어로 하여 조사한 KCI등록 논문 508건에서 가장 자주 출현한 단어는 인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도시, 향만, 경제자유구역 순으로 나타나 인천의 정체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조사 시점이 된 2002년부터 전체적으로 연구량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창원학 동향

- 기초지자체 산하 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의 부설로 창원학연구센터가 최근(2020년) 설립됨
- 마산·창원·진해 통합시 출범으로 창원의 지역정체성 확립이 더욱 중요해 지며 2016년 창원시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에서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창원학 정립’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
- 2010~2019년 기간 동안 발표된 창원학을 다룬 KCI 등록 논문 376건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통합 이슈에 대한 학문적으로 관심이 높았고 이로 인해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증가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연구가 위축됨

3. 고양학 개념 및 연구동향

□ 고양학의 개념

- 고양학은 고양시와 고양시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및 인물과 관련된 공감을 범위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와 이들 분야에 대한 학제적, 종합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임

□ 고양학의 필요성

- 지역 정체성 확보
- 지역 애착 상승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역사 편찬의 구심적 기능 수행
- 지역사회 홍보
-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
- 미래가치 창조

□ 고양학 연구 동향

○ 분석 범위

- 고양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거나 고양시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 단행본 중 고양시의 정체성이나 보편성,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헌을 연구분야별, 연대별, 발표형태별, 지역 키워드별, 비교 대상별로 분석

○ 분석 결과

- 1970년대 7건, 1980년대 28건, 1990년대 163건, 2000년대 324건, 2010년대 409건, 2020년~2021년 7월 기간 145건으로 고양학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다른 지역 연구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시작되어 1990년대 들어 양적으로 크게 증가, 특히 이 시기 고양지역은 시 승격이라는 이슈가 있어 지역에 대한 많은 조사·분석이 이루어짐
- 연구보고서 형태의 조사는 2018년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본격적 연구 활동 시작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 연구원의 연구 인력 확충으로 인한 연구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체 기간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전체의 53.2%, 인문학 17.6, 공학 16.4, 자연과학 6%, 의약학 3.3%, 농수해양학 1.5%, 예술체육학 2%로 연구의 분야 편향도가 큰것으로 나타남. 지역학은 학제적이며 복합적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 편향이 극복 과제임
- 발간형태로는 연구보고서 190건, 국내학술논문 159건, 단행본 및 도서 391건, 석사학위논문 316건, 박사학위논문 20건으로 단행본 및 도서가 많이 발간됨
-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을 포함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일산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덕양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약 28배 많아, 지역에 대한 연구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과 비교 연구는 1기 신도시였던 분당과 일산 간의 비교연구가 과반 이상 차지함

4. 국내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

- 지역학센터 설립 형태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산하 기관, 지역대학 부설 기관, 문화 재단 등 지역의 산하 기관, 그 외 민간단체 운영 기관 등으로 나누어짐
- 민간 영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에 대한 연구 시작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은 충북연구원에서 1999년 충북학 연구소를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학 전담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창원학연구센터(2020년), 대전세종학연구센터(2021년), 고양학센터(2021년)가 설립됨

□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 지역학센터 수행인력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음
 - 설립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광범위한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와 지자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인력이 각각 15명,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학연구소의 경우 7명,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학연구센터의 경우 연구원 2명, 주임 1명, 위촉연구원 3명으로 총 6명, 경기학센터는 3명이 센터 업무를 담당
 - 부산학연구센터의 경우 외부지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부산연구원 직원 2인이 겸직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내·외부 기획위원이 각각 3인, 7인으로 구성
- 2021년 주요 지역학센터의 예산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큼
 -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산연구원의 경우 약 1억원이며 그 외 기관은 4~5억, 제주연구원은 16억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시 출연금으로 사업을 운영되는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2억을 지원받음
- 지역학센터 대부분이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지역학센터 주요 수행사업은 지역학 연구, 아카이빙 구축, 연구 지원사

업,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대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 교재 제작, 발간사업 등

- 학술지를 발행을 통해 지역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 서울학연구소는 최근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남북교류에 관한 지평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제주어 연구와 시민 친화적 제주어 상담실 운영,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 등 특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오픈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 공주학연구원은 아카이브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를 콘텐츠화하여, VR, 웹툰 등으로 생산하여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음
 - 수원학연구센터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채록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
 - 고양시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고양학 분야의 자료와 연구를 총망라하는 ‘고양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과 민관협력이 필요함
- 경기학센터는 2020년 기존 ‘경기학연구센터’라는 명칭을 경기학 진흥을 위한 다각적 사업 강화를 위하여 ‘경기학센터’로 변경
 - 고양학센터는 고양학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고양학 연구 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 발간사업, 학술연구 지원 및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고양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고양학 발전방안

□ 고양학 연구의 발전방안

○ 고양학 연구 집중 분야

- 자문회의 결과 고양학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체육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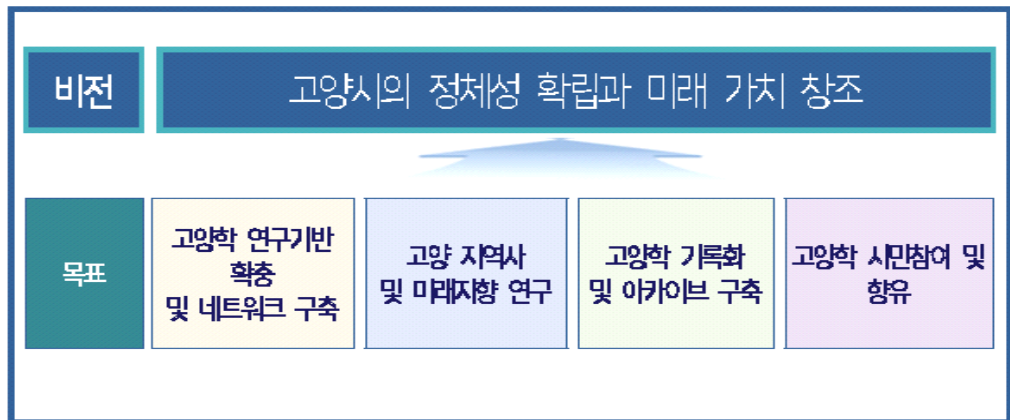
- 연구분야와 연구 대상 지역 편중 개선
-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 간 연구 활성화 필요

□ 고양학 발전방안

-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 다학제적 연구
- 과거, 현재에 기반한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고양학 시민참여와 대중화

□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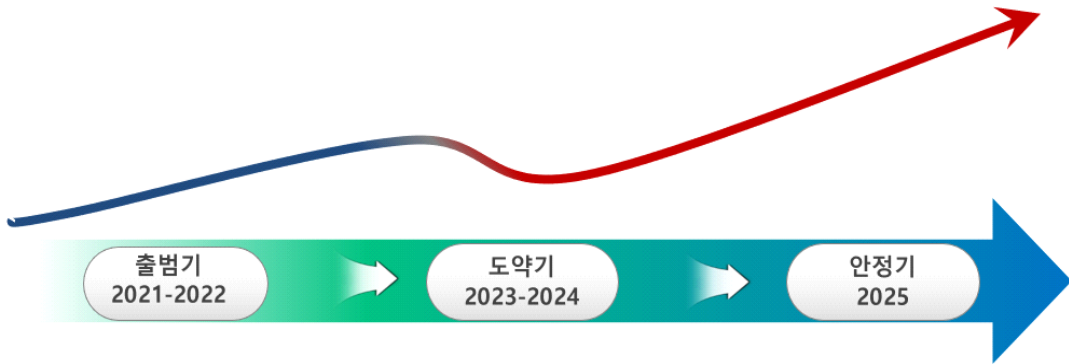
- 고양학센터 비전과 목표



○ 고양학센터 목표 및 추진 전략

목표	추진전략
<p>목표 1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인력 및 예산확보 • 고양시와 고양시회의의 참여 강화 • 고양학 신진 전문인력 양성 및 객원연구원 제도 도입 • 고양학센터 운영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 국가 또는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 적극 참여 • 고양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문화원, 박물관, 민간단체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추진
<p>목표 2 고양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 연구 •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학, 농수해양학, 예술 체육학 등 다방면의 연구 • 다학제, 융합형 미래지향 연구 • 지역고유의 창조적 문화컨텐츠 개발 • 고양학 총서 발간 • 고양학 체계화를 위한 학술지 발간 • 고양학 연구논문 지원
<p>목표 3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 •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 시사자료 수집과 편찬 •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고양학 자료 DB화 • 고양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 시민기록가 양성
<p>목표4 고양학 시민참여 및 향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계 고양학 교양강좌 개최: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 농협대 • 고양학 교재 '고양학 개론서' 발간 • 초, 중, 고 및 시민교육 강좌 운영 • 시민패널제도 및 지역콘텐츠 제작 참여 • 시민답사 프로그램 운영 • 포럼 및 세미나 운영 • 고양학 영상채널 - 고양학 TV운영 • 고양학 소식지 발간 • 고양학 홈페이지 구축 • 고양학 연구 출판과 문화사업을 연결

○ 고양학센터 목표 및 추진 전략



1단계: 출범기	2단계: 도약기	3단계: 안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학센터 비전 및 목표 수립 ▪ 고양학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운영자문위원단 구축 ▪ 고양학 센터 운영규칙 제정 ▪ 고양학 센터 홈페이지 구축 ▪ 고양학센터 정규조직화 ▪ 고양학센터 전담인력 확충 ▪ 고양학센터 연구원내 독립공간 확보 ▪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학 연구 공모사업 - 시민대상 연구과제 공모 ▪ 시민연구총서 『고양학 연구』 발간 ▪ 고양학센터 심포지엄 개최 ▪ 지역대학 연계 고양학 강좌 개설 -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 ▪ 고양시사 발간을 위한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고양학 연구사업 추진 ▪ 고양학 기록화사업 - 고양마을조사 - 구술채록 ▪ 고양학 아카이브 구축 - 고양관련 중요자료 수집 및 DB화 - 고양학 아카이브 시스템 확대 구축 - 고양시내 유사 아카이브시스템 연계 ▪ 시민기록가 양성 ▪ 고양학 교재 '고양학 개론' 발간 ▪ 고양학 영상채널-고양학 TV 운영 ▪ 고양학 소식지 발간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공모 참여 ▪ 고양시사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학 연구 범위 및 총서 발간 확대 - 인문학 총서 - 사회과학 총서 - 자연과학 총서 ▪ 고양 고문헌 연구 ▪ 시민교육강좌 ▪ 초중고 대상 고양학 강좌 ▪ 학술지 등재 ▪ 학위논문 지원 ▪ 고양학센터 정규조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 지역학 국제세미나 ▪ 센터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와 도시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의 특수하고 고유한 성격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호남문화연구소, 제주문화연구소 등 민간 영역부터 시작되었으며, 1983년에는 한국지역학회가 창립되면서 도시계획학자, 지역경제학자, 지리학자들의 참여로 지역학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학훈, 2014). 이후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이 크게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지역학 연구센터가 조직화 되었고, 2010년 이후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1990년 인구 24만이었던 고양군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 108만 8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양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로 시민들의 삶의 본거지보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고양시민이 지역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의 유래, 발전과정, 주민의 생활양식, 지역의 특산품과 지리적 특성, 역사의 주요 무대로서 활약한 많은 일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였고 고양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전통성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고양시는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상징성 면에서 독특한 성격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도시이다. 지리적으로는 도성의 배후지역인 도시로 중국과 북부지방을 연결하는 출발점이었고, 접경지역이기도 하며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곳곳으로 갈라져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는 가와지벌씨, 임진왜란, 경의선, 독립운동, 일산신도시 등의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평화, 생태, 친환경, 한강 문화권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22년 1월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도시 특성에 대한 자리매김과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양의 지난 시절에 대한 반추와 분석을 통해 ‘고양을 제대로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양시가 품어온 민속, 지명유래, 전설, 설화, 인물, 역사 등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복원·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정주공간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감을 갖게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근거와 기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양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양학은 향토사와 같은 과거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고양시의 도시, 문화, 사회, 예술, 경제, 환경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학제 간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양시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발전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고양시정연구원내 고양학센터가 개소되어 고양시에 대한 연구 및 고양학에 대한 시민향유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학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1970년대 부터 현재까지 고양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고양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앞으로 고양학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여섯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학의 개념과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하였다. 각 학자가 정의한 지역학의 개념을 검토하였고 지역학 관련 법률로서 문화 관계 법률과 교육관계 법률, 지역학 관련 1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강릉학, 강원학, 경남학, 군산학, 인천학, 창원학 등 지역학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별 지역학 개념을 검토하여 고양학 개념을 정리하고 고양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고양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행된 연구보고서, 단행본도서, KCI급 국내학술논문, 일반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중 고양, 일산, 덕양, 고봉, 행주 등의 고양 지역 지명들을 주요 핵심어로 담고 있는 연구를 검색하여 도출된 총 1,076건의 논문에 대해 발표연도, 연구분야, 발표형태, 지역 키워드, 비교연구 지역 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국내 지역학 센터 운영현황을 정리하고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학연구센터,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앞선 연구내용들을 종합화하여 고양학 연구의 발전방안, 고양학의 발전방안, 고양학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 관련 연구 동향 및 고양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고양학과 고양학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역학 개념 및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 사례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경기학센터 등 지역학 연구센터의 우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동향 분석

양적분석을 활용하여 고양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행된 연구보고서, 단행본도서, KCI급 국내학술논문, 일반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중 고양, 일산, 덕양, 고봉, 행주 등의 고양 지역 지명들을 주요 핵심어로 담고 있는 연구를 검색하여 도출된 총 1,076건의 논문에 대해 연도, 연구분야, 발표형태, 연구지역, 비교연구 지역, 지역 키워드 등을 분석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학센터 운영진을 대상으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고양학센터 운영 자문위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양학의 필요성, 고양학센터의 중점 사업과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 및 향유 방안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그림 1-1]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지역학 개념과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역학 개념 문화관계 법률, 교육관계 법률 지역학 조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지역학 연구동향	강릉학 연구동향 강원학 연구동향 경남학 연구동향 군산학 연구동향 인천학 연구동향 창원학 연구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고양학 개념 및 필요성	고양학 개념 고양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자문회의
고양학 연구동향	발표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연구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발표형태별 연구동향 분석 지역별 연구동향 분석 비교 연구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분석
국내 우수 지역학센터 운영 현황 검토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 운영진 인터뷰
고양학 발전방안 도출 검토	고양학 연구 방향 고양학 발전방안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제 2 장

지역학 개념과 연구동향

제1절 지역학 개념과 관련 법률

제2절 지역학 연구 동향

제절 지역학 개념과 관련 법률

1. 지역학 개념과 속성

1) 지역학 개념

지역학의 사전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학문적 개념으로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학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오영규(2019)에 따르면 지역학은 기능적으로 나뉜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대상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연구는 지역학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지역학은 어떤 단일학문 분야의 종속물이 아니며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얽혀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으로서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하는 ‘경계선상의’ 학문이다(오영규, 2019). 대부분 학문영역은 상당한 정도의 연구 업적이 누적되고 유사학문과의 경계가 점차 명확해지며 인접학문과의 관계도 설정되고 또 차츰 방법론도 정립되면서 해당 학문분야의 이름이 정해지지만 지역학은 도시가 가지는 성격의 복잡성, 파악하고자 하는 범위의 광범위성, 그리고 도시의 역동성과 가변성 등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에 충실한 순수학문이 되기는 어렵고, 어느 특정 학문분야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학문으로 불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하나의 독립된 학문적 장르(Seoulogy)이기보다는 연구분야(Seoul Studies)라 할 수 있다(안두순, 2014; 고석규, 2014). 김대래(2001)는 지역학을 특정 지역의 형성과정을 사·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심재권(2014)은 연구 대상 지역의 언어와 기본적인 역사, 문화적

지식을 습득한 연구자가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해당지역의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중국학, 일본학, 미국학 등 국가를 단위로 한 지역학을 국제지역학이라고 하고 천인학을 국내지역학이라고 구분하였다. 정정숙(2014)은 지역학을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삼철(2019)는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이해하는 학문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이창식(2016)은 이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하병주(2007)은 인문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연구로 정의하였다.

[표2-1] 지역학의 학문적 정의

구분	개념
오영규(2019)	지역학은 어떤 단일학문 분야의 종속물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얽혀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으로서 순수한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실용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야하는 '경계선상의' 학문
김대래(2001)	특정 지역의 형성과정을 사·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문
심재권(2014)	연구 대상 지역의 언어와 기본적인 역사, 문화적 지식을 습득한 연구자가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해당 지역의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
정정숙(2014)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문
정삼철(2019)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이해하는 학문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구분	개념
	분야의 학문들 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학문
이창식(2016) ¹⁾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하병주(2007) ²⁾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연구
고석규(1994)	지역이라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Walter Isard(1956)	지역학은 공간구성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산·평지·물 등 물리적 환경이 아닌 요소들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물리적 환경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들과 구분되는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학 연구
Garnsey(1956)	지역학이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생리적·사회적 현상들이 지역적으로 물리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또한 지역학이란 종합학문으로 지역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많은 학문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져야 함

이상과 같이 지역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① 공간, 지역과 같은 학문의 대상, ② 종합화, 융합학문과 같은 학문의 특성, ③ 시간의 흐름과 같은 학문의 시간성, ④ 문제의식 공유, 실용성과 미래 방향 제시와 같은 학문의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역학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정리해 보면, 지역학은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또는 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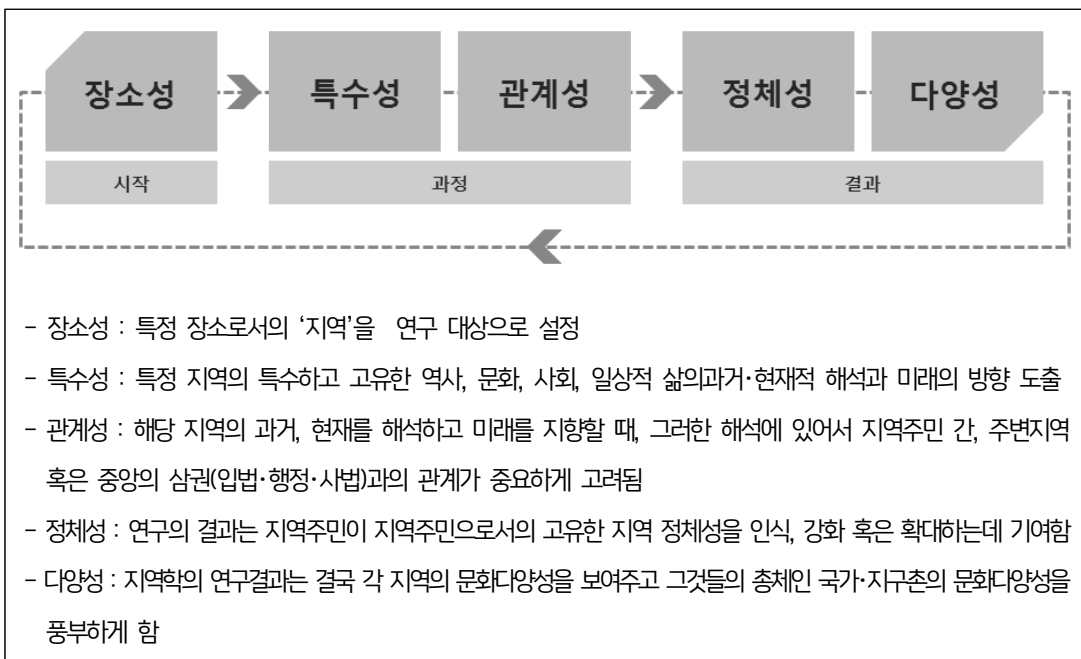
1)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2)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2) 지역학의 속성

정정숙(2014)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역학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1] 지역학 속성



<출처> 정정숙(201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4-4, 19

2.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교육부의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계 법률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고 교육부의 교육관계 법률로 평생교육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표2-2] 지역학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문화 관계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정의: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지역문화 진흥의 기본원칙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인문학 자료의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에 명시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교육 관계 법률 (교육부)	평생교육법	-지역학 강좌와 연관됨: 지역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등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5조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과 같은 국사편찬위원회 업무 -12조 사료조사 등

지역학 관련 지자체 조례는 크게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와 지역학(운영)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눌 수 있다.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이며 연구센터의 사업에 대해 명시해 두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2013년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연구센터의 사업에 대해 문화기반연구 확충,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기기반 확충,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제주학 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제주어 관련 연구,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수행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017년 강원도는 ‘강원학 연구센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연구센터의 사업 범위를 강원도 문화,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

트위크 구축 및 지원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중 중요한 4개를 압축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역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의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조례에는 용인학 강좌 개설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조직은 정책기획관이다. 이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천안시의 ‘천안학 운영 및 지원 조례’이며 천안학 강좌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담당부서는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이다. 이외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주시, 양산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지역학 관련 조례에는 진흥계획 수립과 지역학 진흥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있고 조례 간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표2-3] 지역학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1조(목적)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정책기획관	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 2. 그 밖의 용인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자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p>제1조(목적)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부산학진흥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p>제5조(부산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p>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2017)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p>1조(목적)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4조(지원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천안학 강좌 개설</p>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p>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2.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p>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9)</p>	<p>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p>	<p>제4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세종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p>	<p>미래전략산업국 문화예술과</p>	<p>나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나주학을 진흥하고 나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주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제4조(나주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 (나주학진흥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나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나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나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p>제5조(나주학진흥사업) 시장은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나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나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나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나주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나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p>	<p>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p>	<p>제3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양산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양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양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양산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양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양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양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양산학 진흥사업) 시장은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양산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양산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양산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양산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양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양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여주시 여주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p>	<p>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p>	<p>제3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여주학진흥사업) 시장은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주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여주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3. 여주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	<p>4. 여주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p> <p>5. 여주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p> <p>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p> <p>7. 그 밖에 시장이 여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p>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p>제3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책 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조(사업) 시장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 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

조례명	담당조직	조례 내용
		<p>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 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p>

제2절 지역학 연구 동향

1. 강릉학 동향

1) 강릉학 연구 주체와 경향

현재 강릉학 연구를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으나, 강릉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사이트³⁾에 상당한 분량의 강릉 아카이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강릉문화대전」은 강릉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5년 3월에 사업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06년 12월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최종산출물은 마을지 포함 3,135 항목, 원고 18,000매(200자 원고지 기준), 사진 3,071장, 동영상 78종, 도면 143종, 도표 407개, 음향 58종, 플래시 애니메이션 30종으로 산출물은 서비스 시스템으로서 웹사이트로 발전하여 방대한 양의 아카이빙 자료가 시스템을 통해 각계각층에 접근이 수월하며, 색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강릉문화대전」 성과는 강릉학회의 활동 결과인데 강릉학회는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 지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심층 연구와 함께 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1년 11월 강릉 관련 학술 연구를 통해 강릉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릉학회 창립하고 2004년 「강릉학보」 창간호를 발간하며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확인이 가능한⁴⁾ 강릉학보 연구 자료는 19건이며 2008년 이후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강릉학’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는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 외에 강원연구원(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에서 다루는 연구 범위 중 한 지역으로 강릉이 있으며, 강릉 지역 대학에서 강릉학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3)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gangneung>) 접속일 2021.10.10.

4) RISS(www.riss.kr) 검색일 2021.11.14.

도 한다.

학문으로써 강릉학을 다룬 연구 논문으로는 연준모(2019), 김선례(2001), 함석중(2001), 권춘식(2001)의 연구가 있다.

2) 강릉학 연구동향⁵⁾

연준모(2019)는 ‘강릉학’을 ‘강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개념화하고, 강릉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RISS, KISS, DBPIA의 3개의 논문 데이터 플랫폼에서 ‘강릉’을 주제어 또는 제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 형태의 논문을 검색하였고, 총 474편의 논문을 연구 동향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어서 발행연도와 학문 분야에 따라 논문을 양적 분석함으로써 강릉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수집된 논문들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를 통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각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강릉학 연구의 동향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첫째, 강릉학 연구는 범위가 넓거나 규모가 큰 타 지역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양적으로 풍부하였다. 둘째, 연도별 분석 결과 1966년 강릉 관련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릉학 연구는 공학, 농수해양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의약학 분야에 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등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후술할 고양학 연구 동향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강릉, 강릉단오제, 만족도, 축제 등)와 키워드가 포함된 분야를 분석하고 분야별 키워드 출현빈도와 중심성 수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강릉학 연구 성과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면밀히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5) 연준모(2019). “강릉학의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인문학연구 11권호

[표 2-4] 강릉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강릉학의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2019)
강릉학 정의	강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 2019.2
분석대상 논문 수	474편
검색 주제어	강릉
검색 플랫폼	RISS, KISS, DBpia
분석 방법	양적분석, 의미연결망분석(텍스트 안에 있는 주요 단어들간의 관계와 구조 분석)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 연도별, 학문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키워드별 - 분석 기준별 교차 분석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학 연구가 지역의 규모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학 연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 (474편) ○ 1966년 강릉 관련 연구가 처음 등장한 이래 편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증·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 꾸준히 증가 ○ 인문학(37.6%) 사회과학(19.8%), 자연과학(15.4%)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학(7.8%), 의약학(5.5%) 예술 체육학(5.7%)은 저조 - 인문학: 강릉이 영동지역 민속 문화 중심지 - 사회과학: 지역 경제의 중심지이자 관광 문화 발달 - 자연과학: 산지와 하천, 해양 등 다양한 자연환경 ○ 복합학 분야의 학술지에 실렸던 강릉학 연구는 매우 적음 ○ 연구를 통해 지역학으로서 강릉학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타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 연구활성화를 위해 지역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제시

<출처> 연준모(2019). “강릉학의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인문학연구 11권호

강릉학은 강릉 지역의 인구·면적 규모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전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들이 실증적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 등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증적 연구의 열세는 강릉학 뿐 아니라 다른 지역학에서도 다수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구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가공할 만큼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지역학의 보다 심도있는 실증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기초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

2. 강원학 동향

1) 강원학 연구 주체와 경향

다양한 기관에서 강원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강원연구원과 그 부설기관인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광역지자체 출연으로 2002년 설립되었으나, 2010년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폐지되었고, 2017년 「강원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와 함께 재개소하여 강원학 연구활동을 재개하였다. 연구지원 사업, 번역·출판지원 사업, 연구용역 사업 등 강원학에 관한 연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학아카데미,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강원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5개년 중장기 계획(2021~2025)을 통해 강원학의 허브(hub) 및 서브(serve) 기능 강화, 지역학 학문으로서의 체계적인 ‘강원학’ 연구 방향 수립, 강원학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원도는 강원도 공식 웹사이트의 한 면을 할애하여 학문으로서 강원학을 심도있게 소개하고, 강원학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강원 지역에 관한 소개가 아닌 학문으로서 강원학을 공론화하며 소개하고 함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웹 링크를 기재한 하는 등 강원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학을 연구하고 있다. 춘천, 원주, 강릉 등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및 재단, 민간 연구기관 등을 통해 기초 지역 단위의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춘천학 연구,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지 「원주학연구」, 강릉학회를 중심으로 한 강릉학 연구,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강릉 무형문화 연구소 등 강원지역 기초 단위 지역학 연구기관이 있다. 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지의 경우 강원학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 대학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학문으로써 강원학을 다룬 연구 논문으로는 김정현(2017)⁶⁾, 이상균(2019)⁷⁾, 정지연(2019)⁸⁾의 연구가 있다.

[표 2-5]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강원 지역 관련 학술지 리스트

학술지명	발행기관	연구논문 (단위 건수)	비고
강원문화사연구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38	-
강원사학	강원사학회	292	KCI 등재
강원문화연구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398	-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395	KCI 등재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120	KCI 등재

<자료> RISS(www.riss.kr) 검색일 2021.11.14.

2) 강원학 연구동향⁹⁾

오영교(2019)는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강원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강원학 연구 동향 분석은 1970년 이후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을 유기적 기준으로 인식하여 문화공동체 단위까지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지역이라도 강원도민의 사례연구를 사안에 따라 포함하였다. 주제별로 거시적으로 연구 분야별 분류 후 미시적으로 보다 세세한 주제어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서 혹은 연구, 석·박사 학위논문, 대학 혹은 연구소, 학회 및 기타 연구 관련 기관과 출판사가 간행하는 학술지, 논문집, 단행본 등에 수록된 일반논문 및 단행본, 연구 및 조사보고서 등의 광범위한 문헌을 포함하였다. 분석 키워드는 18개 시·군명, 강원, 관동으로 총 5개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구 현황을 양적 파악하였고 지역별, 분야별, 주제별, 시대별로 제시하였다. 1970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강원 지역사 연구가 가장 다수(17.9%)를, 강원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17.5%)을 차지한다.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지리·환경에 관한 연구가 가장 다수(26.7%)를,

6) 김정현(2017). “강원학에서의 지역사 연구 위상과 과제.” 江原史學, vol.0(no.29)

7) 이상균(2019). “강원학 진흥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역할.” 江原史學, Vol.0(No.32)

8) 정지연(2019).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Vol.0(No.62)

9)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 지방문화, 22

강원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23.7%)을 차지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강릉’과 관련한 논문이 20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이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지역적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표 2-6] 강원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2019)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1970~1998, 1999~2016
분석대상 논문 수	2,741편(1588편, 1153편)
검색 주제어	18개 시·군명, 강원, 관동 등 20개 키워드
검색 플랫폼	RISS, 국회도서관
분석 방법	양적분석(건수 및 비율 표로 제시)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 지역별, 연구주제별(지역사, 지리·환경, 경제, 사회, 정치, 계획, 문화, 민속, 교육), 발간형태별 - 분석 기준별 교차 분석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강원도청 차원에서 강원도 정체성 확립 및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인프라 지원사업 적극적 추진, 18개 시·군 단위 대학연구소, 언론, 문화원, 재단 통해 연구사업 추진 ○ 강원을 주제로 한 학술지가 다수 있으며, 그중 3개는 KCI 등재지급 학술지 - 강원사학,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강원법학 ○ 강원학 연구는 지역사연구(17.9%), 지역경제연구(17.5%), 지역사회연구(10%)가 가장 다수 차지 ○ 지역별로는 강원도전체(638건), 강릉(219건), 춘천(181건), 강릉권(109건)이 가장 다수 차지

<출처>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와지방문화, 22

3. 경남학 동향

1) 경남학 연구 주체와 경향¹⁰⁾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단체는 주로 대학 내 부설 연구소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최치원, 조식, 가야, 지리산 등 경남의 인물, 역사·문화, 경제, 여성, 지방자치, 환경, 교육

¹⁰⁾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단체가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 발간, 도민 등 각 계층 대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표 2-기]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 현황

기관명	소속	기관명	소속
경남학연구센터	경남연구원	산업경영연구원	인제대학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경상남도 산청군	한국문화외문화전력연구소	인제대학교
경남학연구회	경상남도의회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인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창원대학교
남명학연구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창원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경상대학교	남명교육연구재단	진주교육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단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국제대학교
여성연구소	경상대학교	강우문화연구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문대학	경상대학교	남명학회	서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남대학교	점필재연구소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남명학연구원	민간
인문과학연구소	경남대학교	남명산생선양회	민간
교육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김해남명조식정신문화연구회	민간
지방자치연구소	경남대학교	김해남명정신문화연구원	민간
고문학연구소	경남대학교	경남신문	언론사
낙동강유역환경연구센터	인제대학교	경남도민일보	언론사
가야문화연구소	인제대학교		

<출처>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경남학 연구는 기초 단위 지역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창원은 문화예술특별시 창원비전(2016)에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창원학 정립’이 전략에 포함되면서 2018년부터 마산 YMCA에서 창원지역학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진주는 진주문화원 향토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주학이 논의되고 있다. 사천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사천학 교양강좌, 김해는 인제대학교, 김해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에서 김해학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함양은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함양학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함양학 학술대회 개최, 함양구현논총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 경남지역 시군별 지역학 관련 동향

지역	내용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특별시 창원비전(2016)에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창원학 정립'을 전략에 포함 2018년부터 마산 YMCA에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창원지역학 아카데미 운영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문화원 향토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주학 논의 경상대 진주문화연구소에서 진주학 창립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통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통영학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원으로 향토사학자 초청 좌담회 개최 지역대학과 연계한 통영(학) 연구소 설립이 통영시장 공약으로 포함
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내 사천학 교양강좌 개설
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문화의전당&김해여성복지회관 합동 김해학 강좌 개설 인제대학교 교양과목으로 김해학 신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김해학 연구센터 운영 김해고등학교 김해학 강사 운영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산시립박물관 양산 상설전시도록 발간
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동문화원 하동박물관 개설(하동 역사문화 강좌)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산학연구원 함양학연구소(함양학 학술대회, 함양구현논총 발간 등)

〈출처〉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2) 경남학 연구동향¹⁾

경남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 중 양기근 외(2007)는 경상남도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여, 1970년대부터 연구 시점까지의 연구문헌을 연구주제에 따라 9개 분야로 나누어 시기별, 분야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개 대학 도서관 전산망에서 주제어로 검색하여 선별과정을 거쳐 1,444편을 선정하였고, 대부분의 문헌형태를 포함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경남지역 지명 총 21개이며 경상남도, 경상도민, 경상남도의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담긴 문헌을 모두 포함하였다. 연도 및 시대별, 연구주제별, 발표형태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분류를 교차하여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경남학 연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경남 지역문화가 가장 다수(23.8%)를, 경남 지역경제가 다음(21.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형태별로는 정간물 논문 형태(41.1%) 가장 다수였다. 저자는 이들 각 지표를

1)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양기근·강경만·양덕순(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제2호

교차하여 함께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지역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2-9] 경남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1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2007)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1970~2006.8.
분석대상 논문 수	1,444편
검색 주제어	경남,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21개)
검색 플랫폼	2개 대학 도서관 전산망
분석 방법	양적분석, 시계열 분석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 연도별, 연구주제별(지역사, 지리·환경, 경제, 사회, 정치, 계획, 문화, 민속, 교육), 발표형태별(저서, 보고서, 정간물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지역(키워드)별 - 분석 기준별 교차 분석

<출처> 양기근 외(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 제2호

김태영 외(2020)는 경남학을 ‘경상남도라는 공간과 경남인의 삶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지리, 환경 등 분야 간의 학제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를 조망함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1930~2019년 동안 경상남도과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 단행본,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도별, 분야별, 지역별(연구 키워드 및 주제 기준)로 동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분류를 교차시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특히 수집된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남학 연구 키워드를 도출하여, 경남학 연구 종합 주요 키워드와, 광역 분류 키워드, 시·군 단위 키워드, 시·군별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가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구 분야의 치중 정도, 지역 편중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시대를 거듭할수록 연구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경남 지역사가 가장 많은 부분(33.1%)을, 경남 지리·환경이 다음(25.6%)을 차지하였다.

[표 2-10] 경남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2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2020)
경남학 정의	경상남도라는 공간과 경남인의 삶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지리, 환경 등 분야 간의 학제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를 조망함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1930~2019
분석대상 논문 수	5,915편
분석 방법	양적분석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 연도별, 학문분야별(지역사, 지리·환경, 경제, 사회, 정치, 계획, 문화, 민속, 교육), 지역별 - 분석 기준별 교차 분석 - 주요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제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경남학 관련 연구기관단체는 총 35개소(주로 대학 내 부설연구소 형태로 운영) ○ 시대별 연구 증가 추세 ○ 분야별 연구: 지역사(33.1%), 지리환경(25.6%), 문화(10.7%), 사회(8.1%)로 지역사, 지역환경, 문화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양적 불균형 ○ 1970~1990년대에는 지리환경, 사회 치중, 2000~2010년에는 지역사, 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등 대내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연구도 일부 지역에 치중 ○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많고 지역발전 전략 및 미래상 연구, 융합 등 거시적 관점과 거대 담론에 대한 성과 부족

<출처>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4. 군산학 동향

1) 군산학 연구 주체와 경향

2000년대 들어 군산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군산학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연구하며 본격적으로 군산학이 시작되었다.¹²⁾ 특히, 군산은 시 차원에서 군산대학교에 위탁하여 일반 시민 대상의 군산학 강좌를 2011년부터 운영하였고 최근에는 군산시의 시민 평생학습으로서 군산학 강좌를 직접 설계하여 활발한 군산학 교

¹²⁾ 황태욱(2017).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서 지원하는 군산학 강좌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학 강좌는 첫째, 지역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 애郷심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수강생의 인문학적 소양 능력(문화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지역 시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에 비해서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문제를 만드는데, 본 군산학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의 인문학적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그동안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문 분야의 성과를 확인하는 개괄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민 대상의 지역학 강좌를 통해 지역학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고 본격적 논의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 및 강의성과물이 향후 관련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하였다.¹³⁾ 평생학습으로서 군산학 강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군산학 교실을 개설하여 군산지역 48개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군산에 관한 이야기를 교육하기도 하였다.¹⁴⁾

학문으로써 군산학을 다룬 논문으로는 황태묵(2017), 김민영(2016)¹⁵⁾,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2019)의 연구가 있다.

2) 군산학 연구동향⁶⁾

황태묵(2017)은 군산학을 ‘군산이라는 지리적·공간적 경계 내에서 파생된 지역의 역사와 전통, 인문·사회·자연·환경 등의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아 내고자 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RISS와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술지 게재 논문(KCI급)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군산, 고군산군도, 옥구와 임피, 진포(군산의 옛 이름)를 주제로 검색하였으며, 연도별 및 시대별, 학문 분야별·연구자별¹⁷⁾·(학위논문의 경우)학위수여 대학별 동

13) 공종구(2015).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 강좌<군산학(3)>.”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14) 전북일보(2017.05.26). “어린이 군산학 교실, 신난다”

15) 김민영(2016). “항구도시의 지역학 발전과 ‘군산학(群山學)’의 활성화 방향.” 한국도서학회, Vol.28, No.4

16) 황태묵(2017).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을 교차하여 심화된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상세한 결과를 위해 연구를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군산 관련 연구의 기반 구축 및 모색, 즉 자료의 발굴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연구 분야 균등화 필요, 셋째, 연구주제 다양화 필요, 넷째, 연구자 다변화 필요, 다섯째, 신진 연구자의 육성과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 필요, 군산 관련 연구의 대중화 작업의 필요를 들었다.

[표 2-11] 군산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군산학 정의	군산지역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1970~2015
분석대상 논문 수	685편
검색 주제어	군산, 고군산군도, 옥구와 임피, 진포(군산의 옛 이름)
검색 플랫폼	RISS, 국회도서관
분석 방법	양적분석(건수 및 비율 표로 제시)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류하여 학문영역별, 연대별, 연구자별, 대학별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부터 연대를 거듭할수록 연구량 증가 경향 ○ 2000년대는 군산 개항 100주년(1999)이라는 사회적 이슈 시기, 학문적 관심이 늘어 연구량 증가 ○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 분야로, 소외된 학문영역과의 차이 약 10배 이상으로, 분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균등화 필요 ○ 1970년대 이후로 군산에 관한 연구는 실증 연구보다 문헌 연구가 더 다수, 이는 군산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탓이므로 군산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료의 발굴 및 축적 노력 필요 제언 ○ 연구주제 다양화, 연구자 다변화, 신진연구자 육성, 연구기간 교류 활성화, 군산관련 연구 대중화 필요 제언

<출처> 황태목(2017).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17) 연구자별 신분 및 연령별

5. 부산학 동향

1) 부산학 연구 주체와 경향

부산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지역 학문으로써 정착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학문으로써 부산학을 다룬 연구는 타 지역학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편이다. 부산학 연구의 중심에는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와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가 있다.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는 2002년에 제 1회 부산학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부산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활발한 발간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부산이라는 지역을 탐구한 연구를 부산학 연구로 명명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부산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연구로써 부산학의 정립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역이다. 신라대 부산학센터는 학술지 「부산연구」와 「부산학총서」를 활발하게 발간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기관인 점을 살려 학부 교양 과정에 부산학 강좌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부산학을 학문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성과로서 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연구원 부설기관이라는 점을 살려 기획연구, 미래연구, 시민총서, 연구논총 등 다양한 형태의 부산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표 2-12] 부산학 연구 주체

연번	기관명
1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3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6	동아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자료> 오재환(2011).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BDI 정책포커스(111) 재구성

[표 2-13] 부산학을 주제로 한 연구 및 문헌

제목	저자	발행	발간연도	비고
부산학 개론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호밀밭	2015	단행본
지역학으로서 부산학	김석준	신리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3	일반학술지
釜山學 研究現況과 課題 : 부산 역사를 중심으로	강대민	신리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3	일반학술지
부산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김대래	신리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3	일반학술지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부산광역시·부산 대한국민족문화 연구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1	일반학술지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오재환	부산연구원	2011	일반학술지
부산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오재환	제주학회	2012	KCI 등재 후보지
부산문화 연구 성과를 통해서 본 '부산학' 활성화 방안	김태만	오늘의 문예비평	2004	일반학술지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김영일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2	KCI 등재 후보지
아나키스트 지역연구의 전개와 과제: 부산학에서 동아시아공동체론까지	김현숙, 황갑진, 임호	한국이론사회학회	2012	KCI 등재지
부산학의 현황과 과제	김석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KCI 등재지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釜山性)의 건축	김소연	대한건축학회	2008	KCI 등재지
부산학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토론	다수	釜山大學校	2000	KCI 등재지
[종합토론] 2003년도 국제학술세미나 : 부산의 지역혁신과 부산학의 미래	다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KCI 등재지

<자료> RISS(www.riss.kr) 검색일 2021.11.01.

6. 인천학 동향

1) 인천학 연구 주체와 경향

인천학 연구의 중심주체는 인천대학교의 인천학연구원이다. 과거 인천학 연구는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재인천 일본인이 저술한 식민이주 장려 목적의 안내서 성격의

문헌이 다수 전개되었다.¹⁸⁾ 그 후 일제의 왜곡된 역사 서술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사를 편찬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1965년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조직과 함께 1973년 인천시의 지원 하에 인천시사가 발간되었다. 그 후 인천시사는 10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출간되어,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출간되었다. 인천학연구원의 인천학 연구는 향토사나 지역보다 도시 연구에 방점을 두었다. 인천의 경우 자본주의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학연구원에서는 KCI등재지인 인천학연구를 발행함으로써 많은 연구자가 넓은 분야에서 다채로운 주제로 인천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총서 및 자료총서를 비롯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자료에 위치 정보를 입력하여 지역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표 2-14】 등재지 「인천학연구」 게재 논문 (2021)

발간	연구 제목
인천학연구 35 (2021.08.)	인천지역 6차 산업화 발전방안 연구
	베트남전쟁과 인천의 시정(市政) - ‘파월 장병 및 가족 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
	개항장 인천에서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의 저자 및 편찬 배경
	인천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연구
	코로나 19의 지역 전파양상 - 인천과 서울 간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
인천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공고화	
인천학연구 34 (2021.02.)	‘지역 내 재투자력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인천광역시와 일본 요코하마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
	2세대 인천 진보정당의 지속성과 변화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
	한국전쟁 구술사 연구와 인천
	한말 강화 보창학교의 재정수입 분석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연구
	「인천아리랑」의 가치와 대중화 방안
	「인천상륙작전」의 매체별 재현 양상으로 본 인천의 장소성 연구

〈자료〉 인천학연구원 홈페이지(www.isi.or.kr) 접속일: 2021.10.10.

18)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2) 인천학 연구동향¹⁹⁾

조재인(2021)은 인천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인천을 검색어로 하여 2002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검색된 KCI 등록 논문 508건이 연구 대상이다. 추출된 연구 논문은 연도별, 저자의 소속기관별, 학술지 분야별, 저자별로 분류하였으며 기술 통계 결과, 공저 및 기관 내외 협력 현황, 다출현 단어 분석 결과, 중심성 분석 결과, 주제 군집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자의 소속기관은 인천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인하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학술지 분야는 인천학연구 외에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체육과학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등이다. 연구분야는 기타인문학 분야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인천학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 이 분야의 연구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인천을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도시, 항만, 경제자유구역이었으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인천학 연구의 경우, 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 항공, 물류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2-15] 인천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지역 연구에 대한 계량정보적 분석-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2021)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2002~2018.10
분석대상 논문 수	508편
검색 주제어	인천
검색 플랫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 방법	협력 현황, 다출현 단어 추출, 중심성 분석, 주제 군집 분석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연도별, 저자별, 저자의 소속기관별, 학술지 분야별, 기타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제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연구량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연구 고출현단어는, 인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도시, 항만, 경제자유구역 순으로 나타남 ○ 키워드 군집 분석 결과, 인천의 각종 인문사회적 이슈, 항공, 항만 관련 키워드가 추출됨 ○ 질적분석을 통한 지역 내 관심 분야를 추출하였다는 의의 가짐 ○ 유관 기관 간 다양한 협력적 연구 필요 제언

<출처> 조재인(2021). “지역 연구에 대한 계량정보적 분석-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19) 조재인(2021). “지역 연구에 대한 계량정보적 분석-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7. 창원학 동향

1) 창원학 연구 주체와 경향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시로 출범하며 그 정체성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통합 6년차인 2016년에는 창원시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창원학 정립’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는 2020년에 출범하여 창원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창원학연구센터는 설립 후 아직 자체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창원학 연구 지원 공모를 통해 일반에 의한 창원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는 창원시 차원에서 창원기록원 건립을 통한 ‘창원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 창원학 연구동향²⁰⁾

이성호(2021)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게재된 KCI 등재후보지급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3가지 검색어 창원, 마산, 진해를 포함하는 연구 376편을 추출하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별, 연구분야별, 연구 대상별, 연구형태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분야로는 사회과학 분야가 37.5%를 차지하였으며 공학 분야가 19.7%를, 인문학 분야가 18.4%를 차지하였다. 공학 분야의 연구 현황이 높은 것은, 연구 대상의 범위가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행정구역통합으로, 시의 가장 큰 이슈였던 사안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고 그 다음으로는 ‘마산만’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 정체 내지는 침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문학 연구 분야의 감소와 함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외부적 관심이 줄어들었으나 특정한 연구 분야나 주제, 지역 특성이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아 지역연구 성과에 있어서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지역성의 새로운 변화양상이나 이에 따른 지역 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 이성호(2021). “창원 지역연구의 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KCI 등록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제1호

[표 2-16] 창원학 연구동향 분석 개요

분류	내용																																								
분석 논문 제목	창원 지역연구의 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KCI 등록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	2010~2019																																								
분석대상 논문 수	376편																																								
검색 주제어	창원, 마산, 진해																																								
검색 플랫폼	한국연구재단																																								
분석 방법	양적분석																																								
분석 기준 및 결과 제시	연구자별(주저자 1인의 직위, 소속, 지역), 연구분야별(KCI 데이터베이스 기준), 연구 대상별(창원대상, 비교 등), 연구형태별(단독·공동, 연구비수혜여부), 연도별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p>○ 연구량 하락: 행정구역 통합이나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 연구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연구 위축</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2010</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r> </thead> <tbody> <tr> <td>연구량</td> <td>44 (11.7%)</td> <td>38 (10.1%)</td> <td>34 (9.0%)</td> <td>42 (11.2%)</td> <td>57 (15.2%)</td> <td>33 (8.8%)</td> <td>31 (8.3%)</td> <td>30 (8.0%)</td> <td>28 (7.5%)</td> <td>39 (10.4%)</td> </tr> </tbody> </table> <p>○ 시간적 범위가 10년으로, 전체적 연구 동향을 평가하기 한계가 있음</p> <p>○ 연구 키워드 빈도: 행정구역 통합 이슈가 학문적 분야에서 흥미로운 이슈로 작용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키워드</th> <th>행정구역 통합</th> <th>마산만</th> <th>항만</th> <th>도시 재생</th> <th>산업 단지</th> <th>지역 축계</th> <th>민주화운동</th> <th>자전거</th> </tr> </thead> <tbody> <tr> <td>연구 (건)</td> <td>29 (7.7%)</td> <td>28 (7.4%)</td> <td>21 (5.6%)</td> <td>21 (5.6%)</td> <td>18 (4.8%)</td> <td>15 (4.0%)</td> <td>13 (3.5%)</td> <td>13 (3.5%)</td> </tr> </tbody> </table> <p>○ 지역학 연구의 외부 확장 노력 필요, 연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신규 창원 지역연구 입문자 진입 기반 구축 필요 제시</p>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구량	44 (11.7%)	38 (10.1%)	34 (9.0%)	42 (11.2%)	57 (15.2%)	33 (8.8%)	31 (8.3%)	30 (8.0%)	28 (7.5%)	39 (10.4%)	키워드	행정구역 통합	마산만	항만	도시 재생	산업 단지	지역 축계	민주화운동	자전거	연구 (건)	29 (7.7%)	28 (7.4%)	21 (5.6%)	21 (5.6%)	18 (4.8%)	15 (4.0%)	13 (3.5%)	13 (3.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구량	44 (11.7%)	38 (10.1%)	34 (9.0%)	42 (11.2%)	57 (15.2%)	33 (8.8%)	31 (8.3%)	30 (8.0%)	28 (7.5%)	39 (10.4%)																															
키워드	행정구역 통합	마산만	항만	도시 재생	산업 단지	지역 축계	민주화운동	자전거																																	
연구 (건)	29 (7.7%)	28 (7.4%)	21 (5.6%)	21 (5.6%)	18 (4.8%)	15 (4.0%)	13 (3.5%)	13 (3.5%)																																	

<출처> 이성호(2021). "창원 지역연구의 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KCI 등록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제 3 장

고양학의 개념 및 연구동향

제1절 고양학의 개념

제2절 고양학의 필요성

제3절 연구동향 분석

제4절 소결

제절 고양학의 개념

고양학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학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별 지역학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인호와 장지연(2011)은 ‘서울학’을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고, 문순덕(2012)은 ‘제주학’을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로 정의하였다. 황태목(2017)은 ‘군산학’을 군산이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고, 연준모(2019)는 ‘강릉학’에 대해 강릉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별 지역학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로 정의될 수 있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학을 정리한 정의를 살펴보면, 윤종준(2014)은 ‘성남학’이란 성남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을 일컬으며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살기 좋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 분야를 감싸안으며 향토사 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의미라고 하였다. 양기근 외(2007)은 ‘경남학’을 경상남도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인이 주체가 되어, 경상남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현재,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고석규(2014)는 ‘서울학’은 ‘서울’이라 불리는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 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서울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안두순(2014)은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한계」에서 ‘서울연구’가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라면 ‘서울학 연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닌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서울의 깊은 뿌리를 찾는 서울을 다시 찾는 하나의 운동(a movement)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라기 보다는 서울의 뿌리를 찾고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술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며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초기적인 발전 단계에 있는 활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서울학이 추구하는 목적은 순수 학술외에 서울의 뿌리를 찾고, 서울시민들에게 서울학은 친근감을 갖도록 서울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발굴 계승하며, 서울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길을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학이 치중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① 서울에 관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는 일 ② 수집, 정리되고 축적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과학적인 체계에 맞게 재가공하고 체계를 세우는 일 ③ 서울의 사물, 사건, 현상들에 대한 인과관계와 연관성에 맞게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 ④ 비판적인 가설들의 정립과 대안적인 검증방법의 적용을 통해 이론 혹은 명제를 제시하는 일 ⑤ 국내에서 한때 수도였던 고성, 외국의 대도시와 비교 연구를 통해 서울의 특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나 지역학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이며, ‘천안학’은 천안시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으로 정의되었다. ‘강원학’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니주학’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나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주학’은 여주시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상의 구체적인 지역별 지역학의 정의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지역학이란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지역과 관련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화와 체계화를 통해 정체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현재,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표 3-1] 지역별 지역학의 개념

구분	연구자/조례	내용
서울학	송인호, 장지연 (2011)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제주학	문순덕 (2012)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
군산학	황태목 (2017)	군산이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서 이루어진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연구
강릉학	연준모 (2019)	강릉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남학	윤종준 (2014)	성남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을 일컬으며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살기 좋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분야를 감싸 안으며 향토사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의미
경남학	양기근 외 (2007)	경상남도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인이 주체가 되어, 경상남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현재,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활동으로 정의
서울학	고석규 (2014)	‘서울’이라 불리는 지표면 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 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서울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학문
서울학	안두순 (2014)	서울의 뿌리를 찾고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진면목을 살리기 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술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며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초기적인 발전 단계에 있는 활동
제주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
부산학	부산시 조례 (2017)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
강원학	강원시 조례 (2017)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
천안학	천안시 조례 (2018)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
나주학	나주시 조례 (2020)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나주이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
여주학	여주학 조례 (2021)	여주시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양학에 대한 정의는 안두순(2014)의 서울학에 대한 개념정리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학의 연구 대상은 고양시이며 현재 현재 행정구역상의 공간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고양시가 필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공간, 사물,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는 고양시 생성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까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양학 연구 분야는 오늘날의 고양시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과거와 현재의 사실, 사물,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종합학문이자 학제적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고양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양학 연구 방법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문분야에서 고양시에 접근하기 위해 제시되는 여러 견해가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양학은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고양학을 정의하면, 고양학은 고양시와 고양시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및 인물과 관련된 공감을 범위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와 이들 분야에 대한 학제적·종합적 연구이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제2절 고양학의 필요성

1. 지역정체성 확보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함께 경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정체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성격으로, 해당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동일성’과 타지역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개별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자연환경, 사회문화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의 경험 및 체험을 통해 만들어졌을 때 더욱 강력한 지역경쟁력을 발휘하게 된다.

고양시는 1990년 인구 24만이었던 고양군이었으나 2021년 현재 인구 108만 8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도시 개발로 외부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의 지역소속감 및 도시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대사회로 오면서 지역의 경계가 더 모호해짐에 따라 지역정체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양학을 통해 고양시민이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발전과정 자체가 연속적이고 누적적이므로 지역정체성은 단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양학은 고양시를 아우르는 역사적·문화적 조망과 현안, 미래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고양학을 통해 확립된 고양시의 지역정체성은 고양시민이 자긍심, 애향심을 가지는 데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징자본으로 상품화를 거쳐 소비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문화와 관광산업에서 해당 지역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지역 애착상승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 지역의 도시화와 이동 수단의 발전으로 점차 사라지고 지역의 토착적·역사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고양학은 고양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양시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정주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고양학 연구의 진행 과정인 기록물 수집, 인터뷰 참여 등 조사, 주제 발굴 등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연구자는 지역 자료를 시민과 공유하면서 고양시민의 정서적 연대감을 높이고 자부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의 현안과 발전 사안에 대하여 더 높은 관심도를 보이므로(김기현·김영춘, 2018) 향후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고양학 연구를 통한 고양시의 가치 재발견은 고양시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발굴하게 하므로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지역 장소감을 증진하게된다. 고양시에 대한 연구와 결과물은 지역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얻는 정보를 학술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지역과 매우 밀접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어 지역의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깊이 있고 종합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고양학은 고양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입안 및 추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지역학은 융합학문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향토사학자,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고양학 연구를 중심으로 고양시 연구역량 결집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해 고양시의 보유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학술네트워킹 등 지역 내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외부 지역과의 네트워킹으로 지역 간 협조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고양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역사 편찬의 구심적 기능 수행

지역사 편찬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서술을 넘어 역사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성찰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변화를 대응하는 토대가 된다. 즉, 지역사는 지역민들의 삶의 결과물이자 발전적인 도시 설계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후속세대에게 지역만의 문화를 전수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고양시 등 49개 지자체는 시사 편찬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사 편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범위는 생태, 인문, 교통, 건축, 생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매우 방대하고 시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며, 일반적으로 10권 내외로 편집해 발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05년 고양시사편찬위원회와 고양문화에서 주관하여 고양시의 자료와 사료를 약 30개월에 걸쳐 40여명의 집필진과 검토위원 감수위원이 참여하여 전체 7권으로 편찬하였다. 지역학은 시사를 포함하는 학문으로 다학제적인 성격을 활용하여 시사의 양상을 더욱 다채롭게 규명하게 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홍보

고양학의 연구 결과물은 고양시의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고양시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내 학교, 사회복지관, 기타 시설, 민간 영역 등에서 고양시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 및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양학의 연구결과는 외부에 고양시를 알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양시라는 공간을 하나의 학문체계로 형성하여 분석한 역사·문화·생태환경은 타지역을 비롯한 해외에 고양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이때 전통문화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를 포함한 오늘날 고양시민의 모습과 생활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조선 왕릉), 람사르 협약 가입(장항습지) 도시, 유네스코 평생학습 리더도시 관련 연구 등은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세계화 시대에 대한 대응

국경을 초월하여 획일화되어 가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각 지역이 가진 지역성을 강조하여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의 발전과 성장은 중앙에서부터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은 지역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대두되며, 각 지역이 획일화되지 않고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만의 차별점과 매력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김영일, 2012). 고양학을 통한 지역 고유성 발견은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한 고양시의 고유성과 전통성이 소멸될 우려를 잠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고양시의 역사, 주민들의 문화, 지역의 특산품 등의 이야기를 조명함으로써 고양시만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으며, 고양시가 가지는 고유성과 매력은 일원화되는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7. 미래가치 창조

지역학은 역사와 지리뿐 아니라 도시·문화·사회·예술·경제·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융합학문이다. 따라서 지역학의 연구결과는 전 분야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법안에 대한 기획과 자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가 현안에 대응하고 시의 적절한 해법을 얻어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원도심은 도심공동화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역학이 필요하다. 동두천시는 광암동 텃거리 마을에 과거 미군 주둔지였던 박물관을 개관해 기지촌의 역사를 복원하여 마을해설사 양성과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지촌 역사를 아카이빙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학을 통하여 지역 문화유산 및 콘텐츠의 발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스토리텔링을 반영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3절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

1. 연구동향 분석 목적

최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지역학 연구를 정의하고 지역학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고양시도 고양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고양학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양시는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대도시로서의 도약과 고양시민의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고양학을 정의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고양 지역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 등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량적으로 분석하여 고양학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및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또 한계를 극복하여 향후 고양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동향 분석 범위 및 방법

1) 분석 범위

본 고에서는 ‘연구’의 사전적 의미²¹⁾에 따라, 일반적 연구의 형식을 갖춘 연구 및 연구보고서는 물론이고, 고양 지역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깊이 있게 조사한 모든 문헌을 포괄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의 범위를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연구 :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첫째, 고양 지역과 고양시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보고서와 단행본/도서, KCI급(등재지, 등재후보지) 게재 학술 논문, 석사·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 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²²⁾과 지방 자치 단체 산하 연구기관²³⁾ 발행의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1970년 이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성과물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첫째, 1970년 이전의 성과물의 경우 원문을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목만으로 문헌의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동향 분석 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1970년 이전 성과물의 경우 수집된 결과 값이 다른 연대에 비해 현저히 적어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부터라는 선행연구에 따른 것이다.²⁴⁾ 그러나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그리고 고양시 산하 고양시정연구원(www.gyri.re.kr)에서 수집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문헌이다. 세 개의 문헌 자료 플랫폼 및 연구기관에서 고양(高陽, 高揚)²⁵⁾, 일산(一山), 덕양(德陽), 그리고 고양지역 옛 지명인 고봉(高峰)과 행주(幸州), 총 5개의 주제어로 검색하여 수집된 문헌들을 전수 추출하여 선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양 플랫폼에서 확인된 자료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연구물은 제외하고 표제와 요약을 중심으로 고양지역 및 고양시민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2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국가정책연구포털 홈페이지 www.nkis.re.kr)

23) 지방 자치 단체 자치법규의 조례 등을 통해 설립된 연구기관

24) 양기근·강창민·양덕순(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제2호

25)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 두 글자를 모두 키워드로 포함하였다.

자료는 배제하였다.

고양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헌 중에서 해당 문헌을 지역 연구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롯하여 후술할 연구분야를 분류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문헌에서 단일 학문분야가 아닌 다분야 통합적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연구에 한 가지 이상의 주제 및 대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역시 그러하다. 또한 하나의 연구지만 끊어서 1,2,3편으로 발행된 경우와, 요약과 최종 등으로 시리즈물과 같이 발행된 경우 이를 한 편의 문헌으로 볼 것인지는 역시 연구자의 주관에 따른다. 이를테면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의 역사를 방대하게 다뤄 발간한 「고양시사」의 경우 RISS에서 조회된 자료는 총 7권으로 7건이 검색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결과는 7권이 1건으로 조회가 된다. 동향의 분석은 전적으로 양적 분석이기에 건수는 동향 분석에 있어 절대적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단순 분류 과정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크고 작은 원칙을 정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일한 제목, 저자, 발간연도인 문헌과, 같은 연구자가 동일 혹은 매우 유사한 연구를 같은 제목으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각각 발간한 경우 이는 한 가지 연구로 보고 앞서 보고된 연구를 배제하였다. 또한 단순 지도나 분석이 없는 단순 통계·계보는 배제하였으며 고양시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표제에 있으나 지나치게 특수한 현상을 다루고 있어 고양시 및 고양시민이 가지는 보편성 및 특수성을 이해하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제하였다. 또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5할 이상 고양 관련 내용을 다루었을 경우 포함하였다. 연구 제목 및 주제어, 목차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문헌을 읽고 본 연구 주제와의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반면에 제목에서 고양시 관련 키워드를 담고 있지 않으나, 발행주체가 고양시 관련 기관²⁶⁾으로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포함하

26) 예를 들어 발행 주체가 고양시정연구원인 경우, 표제에 고양 관련 지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보고서에서 고양시 정책 관련 함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고양학 연구로 포함하였다.

였다. 마지막으로 표제에서 고양 관련 키워드를 담고 있으나 발행 주체 혹은 발간연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와 제목만으로 내용을 판별하기 어려운데 원문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배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된 분석대상은 연구보고서 190건, KCI급 국내학술논문 159건, 일반 단행본(도서) 391건, 석사학위논문 316건, 박사학위논문 20건으로 총 1,076편이다.

[표 3-2] 고양지역 연구 동향 분석범위

문헌 형태	연구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대상을 깊이 있게 조사한 모든 문헌
수집 문헌의 연구 대상	고양지역 및 고양시민
발표 형태	연구보고서와 단행본/도서, KCI급(등재지, 등재후보지) 게재 학술 논문, 석사·박사 학위논문 (※일반학술지, 기사형 발간물 등 제외)
시간 범위	1970년 ~ 2021년 7월
검색 키워드	고양, 일산, 덕양, 고봉, 행주
검색 플랫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립중앙도서관, 고양시정연구원
총 분석 논문 수	1,076건

3) 자료분석 방법

수집하여 정리된 고양학 연구 1,076편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분석항목은 발표연도, 연구분야, 발표형태, 비교연구, 지역 키워드이다.

구체적으로 발표연도별·연대별 분석은 연도 단위 및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야별 분류 기준은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및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학술연구분야 분류²⁷⁾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27) 인문학(역사학, 철학, 종교학, 유교학, 언어학, 문학, 기타인문학 등), 사회과학(정치외교학, 경제학, 농업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지역학, 인류학, 교육학, 법학, 행정학, 정책학, 지리학, 국제/지역개발, 관광학, 신문방송학, 군사학, 심리과학 등),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등 총 7개의 연구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²⁸⁾ 다만 학술연구분야 분류는 앞선 7개의 분야 외의 복합학 분류가 있는데, 분석대상이 되는 문헌 중 상당 부분이 분야별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 쪽으로 집계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합학 분류는 제외하고 7개 분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복합학의 경우 ‘여성학’을 중분류로 품고 있는데, 앞선 7개 분류 안에 여성정치, 여성복지, 여성인류학, 법여성학 등을 세부 분류로 하고 있어 이를테면 ‘고양지역 여성 정책’에 관련한 문헌이 있을 경우 이를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인지에 지나치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것을 우려하여 복합학을 제외하였다. 선술하듯 7가지의 연구 분야로 각 문헌을 학술연구분야 분포표 안에서도 겹치는 분야가 있을 뿐 아니라, 문헌의 주 내용이 어느 쪽에 속하는 편이 더 알맞은지 배치하는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학술연구분야 분류 8개의 대분류 아래 하위 중분류 총 152개, 소분류 총 1,551개, 세분류 2,468개의 세부 설명을 최대한 반영하여 객관성을 갖고자 노력하였다.²⁹⁾ 그리고 연대별, 발표형태별로 분류하고 지역 키워드별 분류했으며 마지막으로 비교연구의 지역을 분석하였다.

자연과학(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생활과학 등), 공학(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생물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건축공학, 산업공학, 안전공학, 자원공학, 농공학 등), 의약학(병리학, 약리학, 수의학, 가정의학 등), 농수해양학(농학, 임학, 조경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식품과학 등), 예술체육학(음악학, 미술, 디자인, 사진, 체육 등), 복합학(과학기술학, 기술정책, 문헌정보학, 여성학, 학제간연구 등)

28) 복합학의 경우 ‘학제간 연구’를 중분류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학 연구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학제간 연구에 속할 수 있어, 이를 모두 학제간 연구로 집계할 경우 분석 결과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학제간 연구의 경우 보다 근접한 연구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본 고의 동향분석은 제목 및 키워드, 목차 그리고 발간 주체 정보에 의존하여 연구 분야를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복합학으로의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에 원치를 두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학’의 분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29)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접속일 2021.11.30.)

3. 연구결과

1) 연도별·연대별 연구 동향

아래의 [표3-3]을 보면, 1970년대에 발표된 고양 지역 관련 문헌은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7편이다. 1970년대에는 고양 지역을 조사하거나 다룬 문헌이 매우 적은 편인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전반기까지 이어지다 1980년대 후반기에 다소 늘어났다. 1980년대 고양학 지역 연구는 28건으로 다소 부진하나 증가의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 발표된 문헌은 전체의 2.6%이다. 1990년대에는 총 163편의 지역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전체 논문의 15.1%를 차지하는 비율인데, 1990년 한 해만을 제외하고 1990년대는 매해 10건 혹은 20건 이상의 지역 연구가 발표되어, 이 시기가 실질적인 지역연구의 도입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도입기 이후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 크게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평균 32.4건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전반기 평균 27.4건, 후반기 평균 38.4건으로 2000년대에는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처음으로 한 해 동안 발표된 지역연구의 편수가 40편을 넘어섰다. 이 시기에 접어들어 연구 성과물의 양적 증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대에도 상당 수준 증가하였는데, 2010년대에는 평균 40.9건의 연구가 발표되어, 지난 2000년대 평균에 비해 8.5건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발표된 문헌은 전체의 38%에 해당하는데, 특히 2018년 73건, 2019년 83건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2017년 5월 「고양시정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개원한³⁰⁾ 이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고양학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그 후 더욱 확대되어 2020년 104건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7월 기준 41건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2020년대의 경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145건의 연구가 발표되어 2020년대에도 활발한 지역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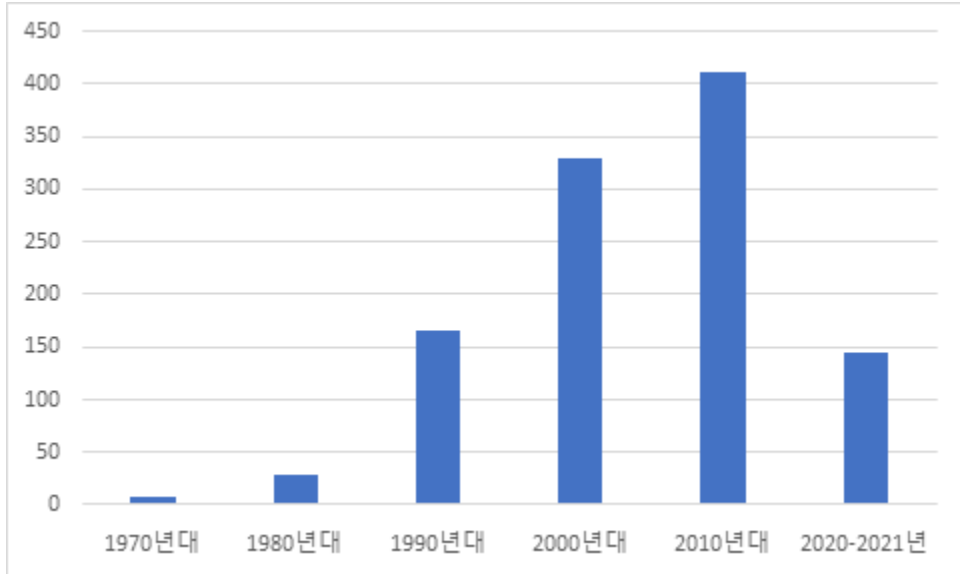
30) 2016년 6월 조례 제정 및 공포, 2017년 2월 공식 설립, 2017년 5월 개원

[표 3-3] 연도별·연대별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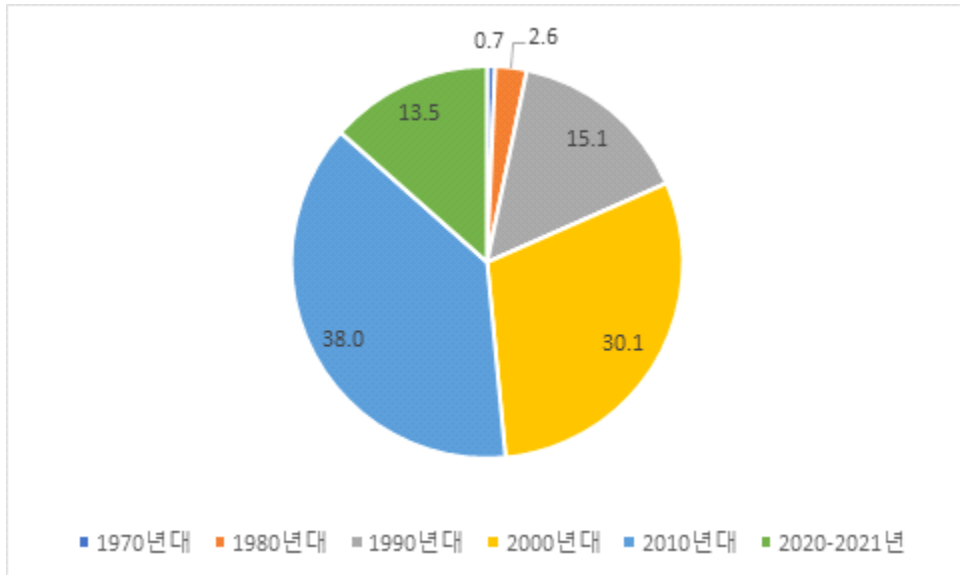
발표 연도	발표 건수	누적 발표 건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1972	1	1	0.1	0.1
1973	1	2	0.1	0.2
1974	1	3	0.1	0.3
1975	1	4	0.1	0.4
1976	2	6	0.2	0.6
1977	-	6	0.0	0.6
1978	1	7	0.1	0.7
1979	-	7	0.0	0.7
1970년대 소계	7		0.7	
1980	-	7	0.0	0.7
1981	-	7	0.0	0.7
1982	2	9	0.2	0.8
1983	2	11	0.2	1.0
1984	3	14	0.3	1.3
1985	2	16	0.2	1.5
1986	4	20	0.4	1.9
1987	4	24	0.4	2.2
1988	7	31	0.7	2.9
1989	4	35	0.4	3.3
1980년대 소계	28		2.6	
1990	9	44	0.8	4.1
1991	13	57	1.2	5.3
1992	14	71	1.3	6.6
1993	10	81	0.9	7.5
1994	15	96	1.4	8.9
1995	12	108	1.1	10.0
1996	22	130	2.0	12.1
1997	22	152	2.0	14.1
1998	27	179	2.5	16.6
1999	19	198	1.8	18.4
1990년대 소계	163		15.1	
2000	26	224	2.4	20.8
2001	20	244	1.9	22.7
2002	25	269	2.3	25.0
2003	33	302	3.1	28.1
2004	31	333	2.9	30.9
2005	40	373	3.7	34.7
2006	42	415	3.9	38.6

발표 연도	발표 건수	누적 발표 건수	백분율	누적 백분율
2007	35	450	3.3	41.8
2008	30	480	2.8	44.6
2009	42	522	3.9	48.5
2000년대 소계	324		30.1	
2010	40	562	3.7	52.2
2011	46	608	4.3	56.5
2012	29	637	2.7	59.2
2013	32	669	3.0	62.2
2014	31	700	2.9	65.1
2015	23	723	2.1	67.2
2016	22	745	2.0	69.2
2017	30	775	2.8	72.0
2018	73	848	6.8	78.8
2019	83	931	7.7	86.5
2010년대 소계	409		38.0	
2020	104	1035	9.7	96.2
2021	41	1076	3.8	100.0
2020~2021년 소계	145		13.5	
총 계	1,076		100	

[그림 3-1] 연대별 연구 발표 건수



[그림 3-2] 연대별 연구 발표 비율



이러한 연구 동향의 양적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전 분야에 있어 조사·분석 연구가 증가한 부분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고양시 시승격(1992년), 그로 인한 지역 연구 필요성 증대 등 학문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분야별 연구 동향

1970년대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지역연구 논문을 연구 분야에 따라 7개로 나누고 시기별로 그 동향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표3-4] 이다. 먼저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상위에 속하는 연구 분야로는 1위 사회과학 분야(572편, 53.2%), 2위 인문학 분야(189편, 17.6%), 3위 공학 분야(176건, 16.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연과학 분야는 65건(6%)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 인문학 분야, 공학 분야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위는 의약학 분야(36건, 3.3%), 6위는 예술체육학 분야(22건, 2%), 7위는 농수해양학 분야(16건, 1.5%)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고양시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와 조사·분석은 지역의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연구 동향의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역사나 고양 지역 개발에 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 지역연구 문헌이 1970년대에 비해서 4배 증가(28건)하였다. 인문학 10건, 자연과학 7건, 사회과학 6건, 공학 4건, 농수해양학 1건의 연구가 있었고 수적으로 통계적 분석이 의미 있을 만큼 증가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는 고양시의 지역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입기로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모든 분야에서 고양 지역에 대한 조사·분석 문헌이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가 그 중 64건(39.3%)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공학 분야에서 53건(32.5%), 인문학 분야에서 27건(17.8%)의 연구가 나타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학분야의 연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시승격 전후로 고양시 전역에서 시행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자연과학 분야 12건(7.4%), 농수해양

학 분야 3건(1.8%), 예술체육학 분야, 의약학 분야가 각각 1건(0.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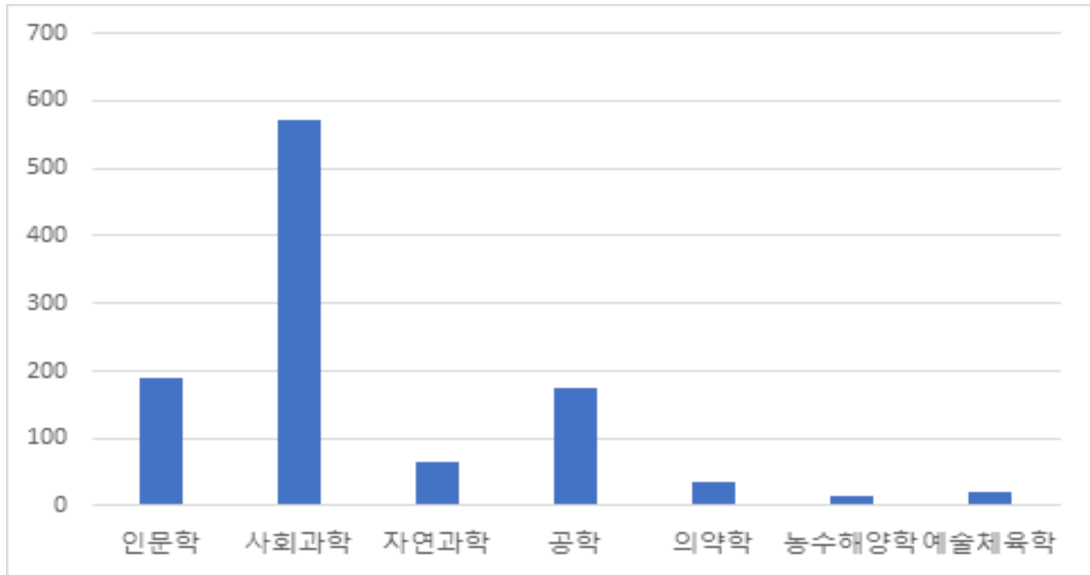
고양 지역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는 무엇보다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회과학 분야가 170건(52.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인문학 분야 연구가 56건(17.3)을 차지하였는데, 역사 관련 문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학 분야 55건(17%), 자연과학 분야 20건(6.2%), 의약학 분야 16건(4.9%), 농수해양학 분야 4건(1.2%), 예술체육학 분야 3건(0.9%)이 뒤를 이었다. 의약학 분야 연구는 학술분야연구분류에 따라 ‘재난통제관리’에 관한 문헌이 있으며 고양시 재해 및 재난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2010년대 역시 사회과학 분야가 233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인문학 분야 83건(20.3%), 공학 분야 42건(10.3%), 자연과학 분야 18건(4.4%), 예술체육학 분야 14건(3.4%), 의약학 분야 13건(3.2%), 농수해양학 분야 6건(1.5%)이 각각 나타났다. 2010년대는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에서 양적 감소세를 보였고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역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연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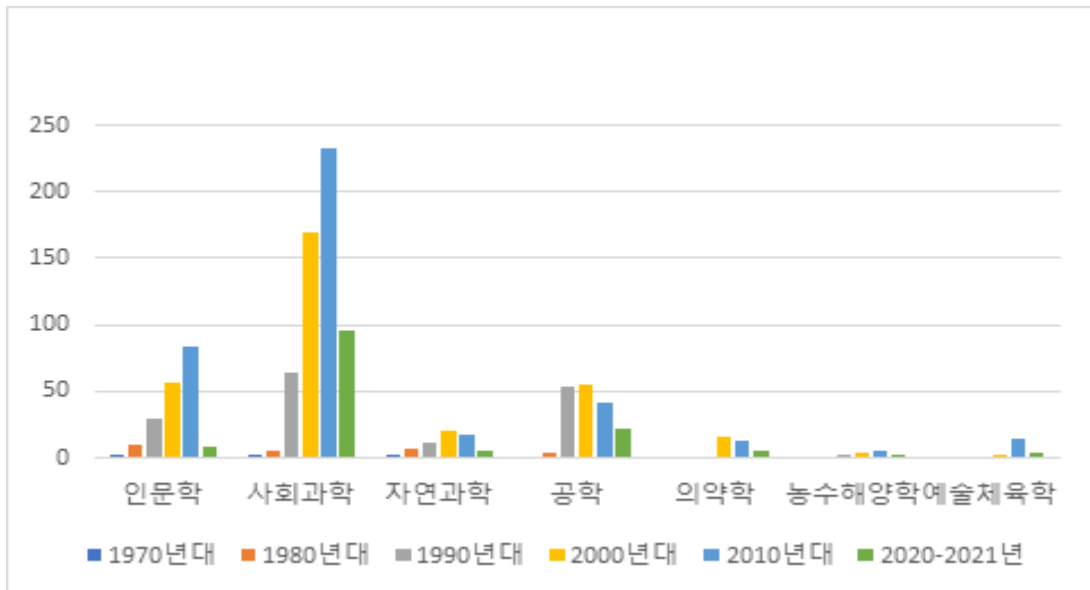
2020년대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사회과학 연구가 96건으로 전체 145건 중 66.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연구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시기별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고양 지역 연구는 지역의 개발과 역사,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는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등의 연구로 분류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비롯한 정책적 조사·분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3] 분야별 연구 건수



[그림 3-4] 연대별·분야별 연구 건수



[표 3-4] 연구 분야별 연대별 연구 동향

(단위: 건수, 연대 대비 %)

구분	연대별							합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 -2021년		
연구 분야	인문학	2(28.6)	10(35.7)	29(17.8)	56(17.3)	83(20.3)	9(6.2)	189 (17.6)
	사회과학	3(42.9)	6(21.4)	64(39.3)	170(52.5)	233(57)	96(66.2)	572 (53.2)
	자연과학	2(28.6)	7(25)	12(7.4)	20(6.2)	18(4.4)	6(4.1)	65 (6)
	공학	-	4(14.3)	53(32.5)	55(17)	42(10.3)	22(15.2)	176 (16.4)
	의약학	-	-	1(0.6)	16(4.9)	13(3.2)	6(4.1)	36 (3.3)
	농수해양학	-	1(3.6)	3(1.8)	4(1.2)	6(1.5)	2(1.4)	16 (1.5)
	예술체육학	-	-	1(0.6)	3(0.9)	14(3.4)	4(2.8)	22 (2)
합계	7(100)	28(100)	163(100)	324(100)	409(100)	145(100)	1,076 (100)	
전 연대 대비 증가율		400%	582%	199%	126%	-		

3) 발표형태별 연구 동향

1970년대부터 2021년 7월 사이 발표된 고양지역 연구성과물을 발표형태로 분석하면, 연구보고서 190건(17.7%), 국내학술논문 159건(14.8%), 단행본 및 도서³¹⁾ 391건(36.3%), 석사학위 논문 316건(29.4%), 박사학위 논문 20건(1.9%)이 발표되었다. 고양 지역 연구의 경우 단행본 및 도서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개발 계획서와 개발 관련 기초 보고서, 유적 관련 보고서, 건축 관련 보고서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원문을 조회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고양 지역과 관련한 단행본 및 도서를 실제로 접하기는 힘들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이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양시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

시기별로 발표 형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단행본이 5건, 석사 학

31) RISS 표기 : 단행본, 국립중앙도서관 표기 : 도서, 이하 '단행본'으로 표기

위논문이 2건 발표되었다. 1980년대 역시 단행본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국내 학술논문이 8건, 석사 학위논문이 4건 발표되었다. 지역 연구 도입기인 1990년대에는 단행본이 94건으로 연대 전체의 57.7%를 차지하였고, 석사학위 논문 53건(32.5%), 국내 학술논문 11건(6.7%), 그리고 박사 학위논문이 3건(1.8%), 연구보고서가 2건(1.2%)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2000년대 들어 연구가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석사 학위논문이 148건(45.7%)로 처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1기 일산신도시의 개발과 동시에 고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분당신도시 지역과 함께 크게 증대된 시기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단행본은 여전히 높은 부분을 차지해 108건으로 연대 전체의 33.3%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국내 학술논문이 46건(14.2%), 연구보고서가 15건(4.6%), 박사 학위논문이 7건(2.2%)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는 고양시정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연구보고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단행본 150건(36.7%)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석사 학위논문이 98건(24%), 연구보고서가 85건(20.8%), 국내 학술논문이 69건(16.9%), 그리고 박사 학위논문이 7건(1.7%)으로 여전히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7월 현재까지 고양시정연구원의 성과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구보고서 형태가 88건으로 기간 중 60.7%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학술논문이 25건으로 17.2%, 단행본이 18건으로 12.4%, 석사 학위논문이 11건으로 7.6%, 박사 학위논문이 3건으로 2.1%이다.

[표 3-5] 발표형태별 연구 동향

(단위: 편수, 연대별 %)

구분		연대별						합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2021년	
발표 형태	연구보고서	0(0)	0(0)	2(1.2)	15(4.6)	85(20.8)	88(60.7)	190(17.7)
	국내학술논문	0(0)	8(28.6)	11(6.7)	46(14.2)	69(16.9)	25(17.2)	159(14.8)
	단행본/도서	5(71.4)	16(57.1)	94(57.7)	108(33.3)	150(36.7)	18(12.4)	391(36.3)
	석사학위논문	2(28.6)	4(14.3)	53(32.5)	148(45.7)	98(24)	11(7.6)	316(29.4)
	박사학위논문	0(0)	0(0)	3(1.8)	7(2.2)	7(1.7)	3(2.1)	20(1.9)
합계		7(100)	28(100)	163(100)	324(100)	409(100)	145(100)	1,076(100)

발표형태와 연구 분야를 교차분석 한 결과는 아래의 [표3-6]와 같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형태의 특성상 정책연구, 사회연구가 많아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153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학 연구가 3건으로 1.6%, 농수해양학 연구가 5건(2.6%)로 나타났다.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역시 사회과학 분야가 78건(49.1%)으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학 분야 29건(18.2%), 공학과 의약학 분야가 각각 18건(11.3%), 13건(8.2%)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 12건(7.5%), 예술체육학 분야가 7건(4.4%)이다. 단행본은 391건으로 전체 발표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인문학 분야가 148건(37.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회과학 분야는 103건(26.3%), 공학 분야 88건(22.5%), 자연과학 분야 36건(9.2%)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약학 분야, 예술체육학 분야, 농수해양학 분야가 각각 9건(2.3%), 4건(1%), 3건(0.8%)으로 적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316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분야가 225건으로 17.2%를 차지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발표형태에 비해 연구 분야별 편차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공학 분야가 49건으로 15.5%를 차지하였으며 자연과학 분야가 11건(3.5%), 의약학 분야가 9건(2.8%), 인문학과 예술체육학 분야가 8건(2.5%), 농수해양학 분야가 6건(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박사 학위논문은 사회과학 분야

137건(65%) 그리고 공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각각 3건, 2건의 연구가 조사되었으며 의 약학과 농수해양학 분야의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발표형태별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단위: 편수, 발표형태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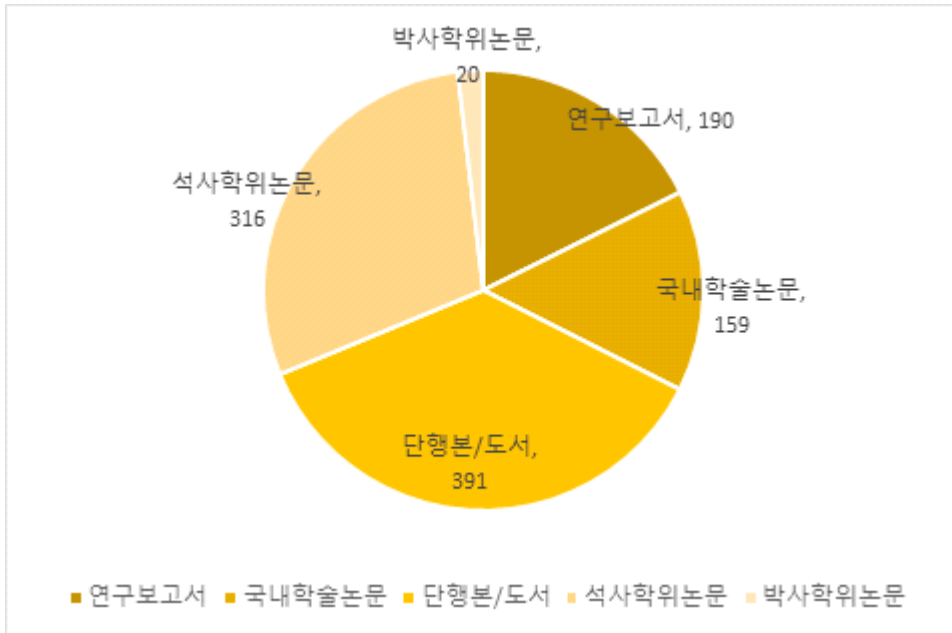
구분	발표형태					합계	
	연구보고서	국내학술논문	단행본/도서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 분야	인문학	3(1.6)	29(18.2)	148(37.9)	8(2.5)	1(5)	189(17.6)
	사회과학	153(80.5)	78(49.1)	103(26.3)	225(71.2)	13(65)	572(53.2)
	자연과학	4(2.1)	12(7.5)	36(9.2)	11(3.5)	2(10)	65(6)
	공학	18(9.5)	18(11.3)	88(22.5)	49(15.5)	3(15)	176(16.4)
	의약학	5(2.6)	13(8.2)	9(2.3)	9(2.8)	0(0)	36(3.3)
	농수해양학	5(2.6)	2(1.3)	3(0.8)	6(1.9)	0(0)	16(1.5)
	예술체육학	2(1.1)	7(4.4)	4(1)	8(2.5)	1(5)	22(2)
합계	190(100)	159(100)	391(100)	316(100)	20(100)	1,076(100)	

[표 3-7]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전후 고양학 연구보고서 발간 수 추이

(단위: 편수)

발행	발표 연도		합계
	1970~2017	2018~2021	
고양시정연구원 발간	0	162	162
고양시정연구원 외 기관 발간	25	3	28
합계	25	165	190

[그림 3-5] 발표형태별 연구 동향



4) 키워드별 동향

추출된 문헌의 제목을 대상으로 지역 키워드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연구 전체 분야에 걸쳐 고양 지역 키워드가 가장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본 장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들이 모두 고양 지역 혹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1,076개의 모든 연구가 ‘고양’ 키워드의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과 상통한다. 그러나 키워드별 동향분석의 목적은 ① 연구 대상이 되는 세부 지역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②역사적 지명의 연구 활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산, 덕양, 고봉, 행주를 제목에서 지명으로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두 고양으로 분류하였고, 다만 지역을 특정한 경우 그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봉은 고려 시대 및 고려 태종 13년 전까지 사용하던 지명으로,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을 다루는 연구와 덕양을 다루는 연구 간의 연구량이 28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산동구의 인구가 약 30만, 일산서구의

인구가 약 30만으로 일산지역을 합하여 일산동·서구 인구가 약 60만이고 덕양구 인구가 약 48만으로³²⁾ 일산지역 인구가 덕양지역에 비해 1.24배 더 많은 점과, 일산동구의 면적이 약 59km², 일산서구 면적 약 43km², 덕양구 면적 약 165km²으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면적을 합쳐도 덕양구 면적보다 적은 것을 고려하여 단순히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연구량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일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제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가 개발되면서 덕양 지역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3-8] 키워드별 연구 동향

(단위: 편수)

구분		키워드					합계
		고양 ³³⁾	일산	덕양	행주	고봉	
연구 분야	인문학	158	17	1	13	-	189
	사회과학	458	106	6	2	-	572
	자연과학	47	16	-	1	1	65
	공학	112	64	-	-	-	176
	의약학	19	16	1	-	-	36
	농수해양학	10	6	-	-	-	16
	예술체육학	18	4	-	-	-	22
합계		822(76.3%)	229(21.2%)	8(0.7%)	16(1.5%)	1(0.1%)	1,076

3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년 10월 기준. 일산동구 인구:299,757, 일산서구 인구:298,643, 덕양구 인구:481,840

33) 특정 지역을 표방하지 않고 '고양'지역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테면 ①제목에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②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비교연구 동향

분석의 대상이 된 1,076건의 문헌 중 61건이 비교연구에 해당하는데, 비교 대상이 된 지역은 아래 [표3-9]에 나타나 있다. 총 63건 중 과반 이상인 33건이 분당과의 비교 연구로, 이는 1기 신도시 개발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였던 분당과 일산의 비교연구가 다수 수행되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현(분당구)을 비롯하여 분당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남시와 고양시의 비교연구가 38(62.3%)건을 차지한다. 그 밖에 근접 시인 파주와의 비교연구가 8건(13.1%) 조사되었으며, 수도권 서울과의 비교 연구,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인 창원과의 비교연구, 남양주와 안양과의 비교연구가 각각 2건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경기 동탄(화성), 광주, 평촌, 하남, 별내, 안산, 제주, 안양, 영통, 부천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각각 1건씩 조사되었다.

[표 3-9] 비교 연구 대상 지역

비교대상 지역		건수	백분율
성남	성남 전체	38	62.3
	성남	4	6.6
	분당	33	54.1
	서현	1	1.6
파주	파주 전체	8	13.1
	파주	7	11.5
	운정	1	1.6
서울		2	3.3
창원		2	3.3
남양주	남양주 전체	2	3.3
	남양주	1	1.6
	별내	1	1.6
안양	안양 전체	2	3.3
	안양	1	1.6
	평촌	1	1.6
제주		1	1.6
부천		1	1.6
하남		1	1.6
안산		1	1.6
광주(경기도)		1	1.6
수원	영통	1	1.6
화성	동탄	1	1.6
계		61	100

[표 3-10] 비교연구 주제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사회과학	신도시 개발 정책(3), 부동산(3), 신도시 개발(2), 신도시 개발 정책 결정 과정, 통신단지 구축 계획, 신도시 문제 및 개선방안, 신도시 개발 문제 및 개선방안, 신도시 이주, 신도시 상업지구, 복지제도, 지역사 교육, 신도시 주민 공원이용 만족도, 상가 입지 특성, 관광정책, 상권 선택 기준, 교통안전 의식, 여가활동, 휴대폰 활용실태, 교육, 녹지공간, 지역주민운동, 토지이용, 시설 이용 행태, 부지 용도 변질,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공공자전거제도(경제효과), 인구특성, 보육서비스, 공원 시설, 산업 성장 및 고용효과, 특정 관광 인식, 점포주택 거주, 개발제한구역 이용관리
공학	근린상업용지 특성, 근린생활시설 특성, 교통체계, 단독주택지, 도시 이용행태, 도시온도, 인구이동, 도시공간계획, 교통수단 선택행태, 신도시 기능변화, 국민임대주택단지 방식,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서울광역도시권의 직주접근성, 도시환경 인지, 출퇴근 시간 가치, 공공자전거제도(대여소 입지)
예술체육학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색채, 아파트 색채
의약학	의약품 병용 문제

제4절 소결

고양학은 고양시 및 고양시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과 인물과 관련된 공간을 범위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연구와 이들 분야에 대한 학제적, 종합적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고양학의 필요성과 함께 고양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은 고양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거나 고양시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 단행본 중 문헌을 추출하고 추출된 문헌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등 7개 연구분야, 발표연도 및 연대, 발표형태, 지역키워드, 비교대상을 기준으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연구 중 최종 연구분석 대상이 된 연구는 연구보고서 190건, 국내학술논문 159건, 단행본 및 도서 391건, 석·박사 학위논문 336건으로 총 1,076건이다.

연구동향 분석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별 분석 결과, 고양학 연구는 여타 지역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서서히 연구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시승격 이슈가 있었던 1990년대 들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시도되었고 연구보고서나 박사학위 논문도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발표형태도 다양해졌다. 그 후 연구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특히 고양시정연구원 개원과 함께 2018년부터 연구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확충되면서 고양학 연구 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양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분야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양적 성장이 가시적이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양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으므로 고양지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사업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분야 분석 결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전체의 53.2%이며, 인문학이 17.65, 공학 16.4%로 나타났고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의약학은 각각 5% 미만으로 저조하여 고양학 연구가 특정영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21년에는 사회과학과 공학이 연구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인문학 분야의 경우 연구분야 편중 정도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17.6%로 적은 연구량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역사, 문화, 인물, 삶에 대한 철학을 정체성으로 승화하고 고양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인문학적 성찰을 위해 인문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K-콘텐츠 문화생태계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예술체육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급격하게 도시화 된 고양시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계획과 건설과정을 집중 분석한 공학연구와 가와지 법씨, 이가순 수로, 송포평야, 행주들판, 화훼와 원예, 장항습지, 한강하구 기수역 등 발전시켜야 할 자산에 대한 연구로 농수해양학 연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 기준으로 삼고있는 학술 연구분야 분류 체계에서, 농수해양학이 7개의 중분류를 가지는 반면에 의약학이 39개의 중분류를 가지고 있는 등 분야별로 집중된 문헌의 편수만 두고 불균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양 지역 연구 분야의 쏠림현상을 인식하고 모든 관련 연구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학문공동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 대상지역으로 제목 혹은 발간 기관의 지역 키워드 분석 결과, ‘일산’과 ‘덕양’ 등 고양시 모든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고양시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후 특정지역에 대한 키워드 분석에서 일산 지역 연구가 덕양 지역 연구의 28배 이상의 연구량을 기록하고 있어, 고양시 지역연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은 인구수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으며, 면적은 오히려 덕양지역이 더 넓은 것과 대비하였을 때 지역별 연구량의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일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제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가 개발되면서 덕양 지역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해당 분

야의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적, 종합적 연구에 대한 분야 분류 기준이 없고 실제 연구도 부족하므로 학제간 융합연구성과 관리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양 지역에 대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첫 연구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립중앙도서관,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게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분야 분류에 있어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자료 뿐 아니라 오프라인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함께 고양학 연구동향에 대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다.

제 4 장

국내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제1절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

제2절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제3절 소결

제절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

1.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

1990년대 시작된 지방자치의 본격화와 더불어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 확대와 지역 기록(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역 맞춤 정책 필요성 증대와 함께 200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는 지역학을 다루는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 '-學'이라는 명칭을 붙여 부르며, 그 지역이 지니는 정체성을 찾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며 더불어 지역의 역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설립되어있는 지역학 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다.

[표 4-1] 전국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지자체 정책연구원 (11)	충북학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1999
	강원학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02
	부산학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대구경북학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04
	울산학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제주학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수원학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4
	전북학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경남학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	2019
	창원학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	2020
	고양학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2021
대학 연구소 (16)	호남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63
	서울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3
	충북학	충북대학교	충원문화연구소	1997
	전북학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7
	원주학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매지학술연구소	1999
	울릉학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충청학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2001
	부산학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02
	인천학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충청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3
	공주학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4
	천안학	나사렛대학교	천안학연구소	2021
	경남학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
	경남학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
	익산학	원광대학교	프리임사업단	-
지역 기관 (6)	용인학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1992
	안동학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학 연구	2001
	전주학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역사실	2002
	충청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2004
	경기학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2005
	고양학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2020
지역 연구단체 (3)	제주학	-	제주학회	1997
	제주학	-	제주학연구소	2004
	경산학	-	경산학회	2014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책연구 기관인 연구원에 설립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형태로 가장 초기에 설립된 센터는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 들어 많은 지역학 센터가 설립되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시 정책 연구원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지역학 센터를 두고 있다. 용인의 경우, 용인시정연구원 아래 지역학 센터는 없고 용인문화원 부설로 용인학연구소가 있다. 또 지역 대학내에 지역학 연구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국·공·시립 대학에서 별도의 예산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활발하게 지역학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지역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닌 재단, 문화원, 박물관에서도 별도의 지역학 연구기관을 두기도 하였다. 제주같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있고 과거로부터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여 지역학 연구가

일찍이 시작된 지역은 민간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 몇몇의 민간 지역학 연구단체가 있다.

다음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지역학 연구기관 중 비교적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연구 및 아카이빙 혹은 사업에 있어 특이점이 있거나 모범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센터(연구원) 중 설립 유형별로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부설 3군데, 대학 부설 2군데, 재단 부설 1군데, 총 6군데의 지역학 센터 운영현황과 활동을 개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학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

1. 제주학연구센터

1) 설립과 비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 2010년 제주연구원(구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되었다. 2011년 8월에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실천계획(2010.10.)이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은 제주도 위상 정립,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활성화,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연구 확산 중심기구 역할 수행이다. 제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학회, 제주지역 대학, 그리고 국내외 지역학 연구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인문·사회·자연 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학제적·종합적·융합적 연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의 중심으로서, 제주학 관련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제주학의 확산 토대 마련 및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자 및 민간연구 단체 별로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 연구를 집적하고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로써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제주학의 현실 활용·확산 및 미래 문화산업 방안을 도출하며 제주학 연구자 및 후속 세대의 연구를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내륙 지방과 단절된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의 지역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다른 지방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와 언어 등이 있는 곳으로 일찍부터 지역학 연구가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며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중심에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4-2] 제주학연구센터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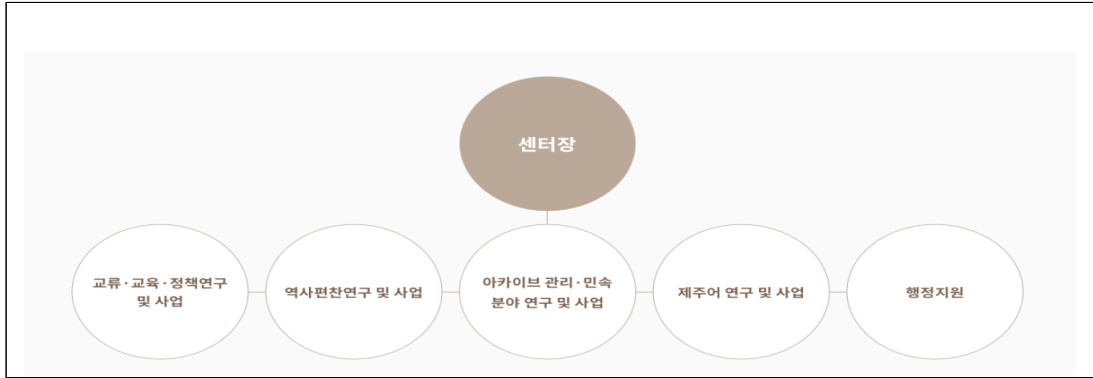
협약 연도	협약 기관
2010	• 제주연구원(옛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위탁 계약 체결
2011	•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 제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12	• 제주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제주어 표기법> 제정
2014	• 제주학 아카이브 개설
2016	• 제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2017~2021)
2018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2019	• 제주어 종합상담실 개소 및 <들어봅사> 전화(1811-0515) 개통
2020	• 제4회 제주학대회 및 제주학 아카이브展

<자료> 내부자료 및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st.re.kr>) 재구성

2) 운영과 조직구성

출범기 센터 조직은 상근과 비상근 연구 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상근 센터장 1인,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원 각 3인, 연구보조원 3인, 정보처리 담당자 1인과 비상근인력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었다. 이는 안정기에 접어들며 센터장 1인, 연구원 3인, 행정직 1인으로 개편되었고, 출범기와 발전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는 센터장, 교류·교육·정책 연구·사업 1인, 역사 편찬 연구·사업 2인, 아카이브 관리, 민속분야 연구·사업 2인, 제주어 연구·사업 4인, 행정지원 2인으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센터장 1인, 전문직 8인, 행정원 2인, 위촉연구원 및 연구보조 4인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 4-1]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형태



<출처>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st.re.kr>)

3) 예산 및 시설(공간)

2021년 기준 제주학연구센터의 예산 규모는 16억 1,250만 원이며 이중 8억원은 운영비, 8억 1,250만 원은 사업비로 분류된다. 공간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표 4-3] 제주학연구센터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제주는 지형학적 특성상 일찍이 지역학 연구기 시작한 곳으로, 제주도 위상의 정립, 제주지역의 전문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센터의)제주학 연구 확산 중심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방향 및 비전	“제주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지역 연대·시민 지향의 제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연구센터 독립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 사회 자원 구축 • 운영의 4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세계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제주학 지향 -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플랫폼 구축 -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 -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
조직	센터장 (1인), 전문직 (8인), 행정원 (2인), 위촉연구원 및 연구보조 (4인) 및 별도의 제주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	2021년 기준 16억 1,250만원 (운영비 8억 원, 사업비 8억 1,250만 원)
시설(공간)	70여 평 규모 독립 공간 사용

<자료>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4) 연구 및 아카이빙

제주학연구센터는 센터 주도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학 센터 및 연구기관이 사업이나 민간 교육 및 아카이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하겠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발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간물은 아래와 [표 4-4]와 같다. 아카이브 성격을 가진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형식의 발간물이 많으며, 여러 해에 걸친 시리즈물을 기획하며 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완성도 높은 연구 문헌을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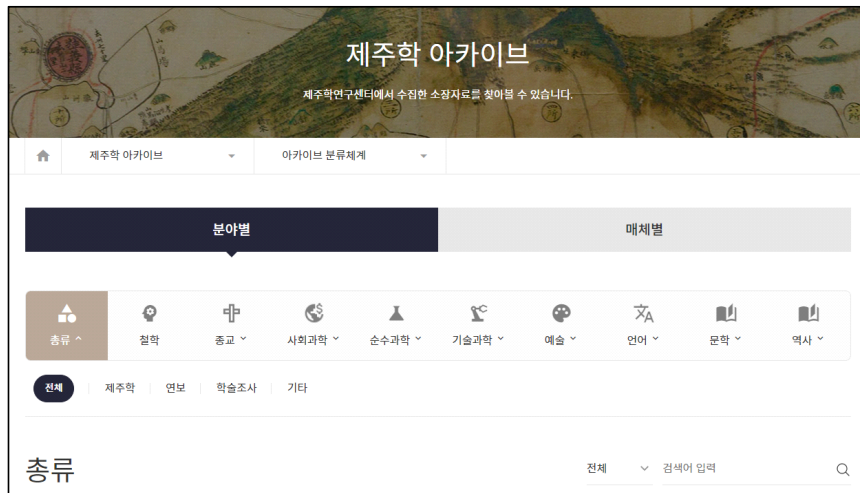
[표 4-4]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및 자료 발간

발간 연도	제목
2016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일본어신문〉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동아일보〉
2017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Ⅰ-효종대〉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시대일보 외〉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조선일보〉 〈제주어구술자료집〉 1-10권 제주학 개론
2018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Ⅱ-현종대〉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又忍 高수선傳〉 〈제주어구술자료집〉 11-20권 〈제주 고문서(Ⅰ)-제주 상창리 梁氏家 고문서〉
2019	제주특별자치도지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부산일보〉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매일신보〉 〈제주어구술자료집〉 21-28권, 〈제주 세계자연유산 선각자 부총후 길 이야기〉 〈제주 고문서(Ⅱ)-제주 도두리 고문서〉 〈프란게 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인 미디어(Ⅰ)〉 〈승정원일기 제주기사Ⅲ-숙종대〉
2020	〈제주어종합상당실 들어봄서 상담자료집①〉 〈초가 관련 제주어 구술 자료집〉 제주학연구센터 반년간 소식지 '제주바투리' 〈제주어종합상당실 들어봄서 상담자료집②〉 〈제주어구술자료집〉 29-36권 〈목축 문화 관련집〉 제주어 구술자료 제주어총서 〈제주어 길라잡이〉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승정원일기 IV-경종영조대(1)〉 〈프란게문고 제주기사 자료집-재일조선 미디어(Ⅲ)〉

〈자료〉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은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내 2014년 3월에 개설되었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정보화 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 특히 고문헌, 고지도, 구술자료, 신문기사, 제주관련 영상물 등 다양하고 깊이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는 전체 51,000여 건 규모이며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유형별로는 제주학 DB 6,058건, 고문헌 268건, 해외문헌 8건, 고지도 8건, 사진 14,310건, 동영상 1,662건, 구술(음성) 1,333건, 신문기사 5,045건, 제주역사 19,483건이 게시되어있다.³⁴⁾ 검색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내 제주학아카이브 페이지의 페이지 뷰 수는 누적 약 179만 회로 매년 약 26만 명이 접속하여 조회하고 있다. 특히, 제주학 아카이브의 확장을 위해 최근에는 제주학대회 및 제주학 아카이브전을 개최(2020)하여 제주 아카이브를 홍보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을 공모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2]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내 제주학아카이브 페이지



<자료> 제주학아카이브 페이지(<http://www.jst.re.kr/jejustudiesDBList.do?cid=01>) 접속일 2021.11.11

34) 접속일 2021.11.11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1) 연구 지원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연구·교육사업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관련 사업 및 연구, 해녀문화의 보전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문화, 목축문화, 마을어장, 제주옛길, 건설지, 목민관 비석 등과 관련한 연구를 공모하여 지원한다. 제주학 연구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68건의 연구(자체 14건, 공모과제 54건)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4-5】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개요

사업연도	2020년	2021년
사업 제목	2020 제주학연구비 기획 주제 공모 지원	2021 제주학 연구비 지원 공모
목적	제주학 연구 활성화 및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 기회 확대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성 연구 • 제주의 자연환경 특징에 대한 조사 연구 • 제주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근현대 제주 역사 문화 자료 조사 연구 • 제주의 마을 자원 조사 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주제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성 연구 • 제주의 자연환경 특징에 대한 조사 연구 • 제주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발굴 및 기초 조사 2.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학술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관련 연구 기관 또는 관련 학술 단체에 소속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 연구소에 소속된 자 • 제주학 관련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제당 2,000만원 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건 2,000만원 이내 2. 자유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건 건당 1,000만원 이내

<출처>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st.re.kr>)

(2) 학술회의 개최

제주 지역에는 다양한 지역학 연구자와 연구 및 조사 기관이 있다. 그 안에서 제주학 확립에 중점적 역할을 하는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양한 종류와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표 4-6] 제주학연구센터 개최 학술회의

개최 연도	행사명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 <제주어 표기법> 제정 관련 세미나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보전 방향 관련 세미나 • 제2회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세미나 •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과 전망' 토론회 • 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제주학 정책 포럼 • 제1회 제주학대회 • 제5, 6회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녀 문화 학술대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사 국제학술대회 •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 제주 해녀 국제학술대회 • 한국고문서학회 제주학연구센터 제주 공동학술대회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제주 해녀 문화 학술대회 • 제8회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정책 세미나 •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년-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 '제주어를 놀다'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 • 제5회 제주학대회(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어 포럼, 제주어 자료전, 제주학 학술대회, 역사탐방 등)

<출처>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jst.re.kr>) 및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3) 교육 사업

교육사업은 강좌와 교사연수, 아카데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제주 문화 아카데미,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구술사 강좌, 제주학 시민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고전 강독회, 제주 신화학교 등 일회성이거나 매년 열리는 강좌가 있다. 2021년에 진행한 교육 사업은 제주신화학교, 제주학 인물사 강좌, 제주 고전강독회, 제주학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이며, 특히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2021년 처음 개설한 과정으로 제주학 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4) 협력관계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연구기관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그리고 방송국, 신문사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기관과 협약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주지역 뿐 아니라 기타 광역 지방과 해외의 기관과도 협약관계에 있으며 제주 지역 기관과 협업한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고, 전국 지역학센터 및 연구소가 참여하는 한국 지역학 포럼에도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표 4-7] 제주학연구센터 업무 협약

협약 연도	협약 기관
2011	• 제주학회
2012	•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 제주문화방송(제주MBC)
2014	• KCTV, 민요학회 • 한라일보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원광대학교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 제주의 소리 •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2018	• 강원학연구센터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도리네트워크
2019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일본 가고시마대학 국제도서교육연구센터 • KCTV 제주방송 • (사)제주어연구소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20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곳자왈공유화재단 곳자왈연구소 • 한국방언학회
2021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JIBS제주방송

<자료>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5) 제주어 관련 사업

제주지역의 경우 독립적 역사와 지리적 특성상 방언이 독특하며 표준어와의 차이가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큰 편으로, 제주지역은 제주어를 보존하고 살리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또한 제주가 가지는 정체성 중 하나인 제주방언을 보존하고 알리고자 특별히 제주어와 관련한 연구, 세미나, 공모,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주어 보존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주어 종합상담실과 그 상담 사례집의 발간을 통한 제주어 홍보성 사업이 특징적이다.

[표 4-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보존 관련 근가사업발간

연도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제주어 표기법〉 제정 관련 세미나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어 보존 방향 관련 세미나 〈제주어 표기법〉 제정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어 공모전(~현재) 〈제주어구술자료집〉 1-10권 발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제주어구술자료집〉 11-20권 발간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어 종합상담실 개소 및 〈들어봅서〉 전화(1811-0515) 개통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가칭)제주어대사전 편찬 기본 계획과 집필 지침 발간 〈제주어구술자료집〉 21-28권발간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①〉 발간 〈초가 관련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 유네스코 소멸 위기 언어 분류 10년-제주어 포럼 및 기억 행사 ‘제주어를 놀다’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②〉 발간 〈제주어구술자료집〉 29-36권 발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회 제주학대회(제주어 포럼)

〈자료〉 제주학연구센터 내부자료

6) 특징

제주학연구센터는 외부 연구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센터 내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센터 고유의 연구량이 많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간 예산 16억 규모로 센터 운영지원이 탄탄하며 제주지역만이 가지는 ‘제주어’의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시

민에 알리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학 연구센터의 아카이브 구축 규모는 5,100여건으로 매우 큰 편이며 오픈 아카이빙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육지와 차별된 문화나 역사를 가지는 제주라는 지역특성상 제주학을 연구하는 민관 기관이나 단체가 많고 제주학 연구센터는 그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부산학연구센터

1) 설립과 비전

지방자치제의 안정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급속한 심화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부산의 자립과 도시 간 경쟁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한 부산 지역사회의 관심은 부산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정부차원에서 부산학은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부산시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토대로서 기능해 줄 중요한 보고로 여겨지기도 했고, 시민들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소할 통로적 역할을 기대하거나 나아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지역 언론에서는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중국 등의 사례와 함께 서울과의 비교를 통한 지역 독자 발전 제안 등 부산학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기획 기사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단기적 정책 대안을 넘어 부산발전을 위한 철학과 이론, 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다. 원내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부산학세미나’가 꾸준히 이어졌고, 기존 부산연구의 결과물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체계화를 시도하여 ‘부산학시리즈³⁵⁾’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2002년 9월 개원기념세미나의 주제로 ‘부산학 연구의 방법과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부산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원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후 2003년 부설기관으로 ‘BDI 부산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부산학 기초자료정리와 연구서 발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산학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35) 『부산발전론』(1993), 『부산경제론』(1995),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1997), 『부산도시론』(2000).

계획을 세우고 지역학 연구의 중심,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산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물들을 내기 시작하였다.³⁶⁾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학을 육성, 확산하기 위한 부산학 10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지원 아래 설립되었다. 부산학연구센터의 부산학은 부산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부산이 가지는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운영과 조직구성

부산학연구센터는 부산연구원에 조직되어있으며 부산연구원은 1992년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초대 원장이 취임하며 형성되었다. 개원 시 명칭은 ‘동남개발연구원’이었으나 ‘부산발전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2003년,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과 통합되었다. 감사위원회, 연구심의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와 경제·산업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해양·관광연구실, 경영실, 기획조정실 등 6개 실,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동향분석센터 등 2개 센터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중 부산학연구센터는 사회·문화연구실 아래 부설로 있다. 부산학연구센터는 1명의 센터장과 1명의 연구원, 10명의 내·외기획위원, 7명의 자문위원이 센터 운영을 돕고 있으며 부산학연구센터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다.

3) 예산 및 시설(공간)

부산학연구센터는 연간 평균 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연구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부산학 및 지역학 관련 출판 서적을 보관하는 별도 공간이 있다.

36) 오재환(2012). “부산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제주도연구, 37권

[표 4-9] 부산학연구소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부산학 연구를 통하여 부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금의 부산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3년 설립
방향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이 가지는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며, 그동안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산학 연구 및 연구 추진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학제적 연구 지향 • 부산 시민으로 하여금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금의 부산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조직	센터장(겸직) 1인, 센터연구원(겸직) 1인, 내부 기획위원 3인, 외부 기획위원 7인
공간	부산연구원 내 부산학 및 지역학 출판 서적을 보관하는 별도 공간이 보유되어 있으나, 조직원을 위한 별도 공간 없음
연간 예산	평균 약 1억원

〈자료〉 부산학연구센터 내부자료

4) 연구 및 아카이빙

부산연구원 도서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아카이빙 자료를 일부 제공한다. 특히 부산학연구센터 출간 자료는 부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만의 아카이빙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도서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아카이빙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부산학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발간 사업으로 부산학 연구논총을 비롯한 교양총서, 자료집, 기획연구 등을 발간하고 그밖에 각종 박람회와 연구 정보자료실 운영, 시민강좌 개설, 전국 지역학 학술세미나 진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소재 각 대학에 부산학 관련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부산학 교재 발간사업, 부산학 연구주체 관련 석·박사 논문 지원 사업, 부산학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책자 발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발간사업은 2003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홈페이지 고시된 바로는 2012년까지 수행되었다.

(1) 연구 지원 사업

부산학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부산학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했다. 부산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를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또한 특징이다. 2020년에는 부산학 교양총서와 연구총서 분야 발간을 위한 연구를 공모했으며, 2021년에는 시민총서 분야가 추가되어 총 3개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하였다.

[표 4-10]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개요

사업연도	2020년	2021년
사업 제목	2020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2021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분야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학 교양총서: 창고의 사회사가 말해주는 해양도시 부산, 여행으로 살펴보는 부산정체성 중 택 부산학 연구총서: 피란수도 시리즈(Ⅳ):피란수도 음식문화, 마을의 미래(Ⅳ):00마을의 미래 중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의 골목(동네산책, 부산의 언어-부산 사투리 중 택) 부산학 시민총서: 산업화 시대의 부산, 부산의 스포츠-부산갈매기들의 야구이야기 중 택 부산학 연구총서: 마을의 미래(Ⅴ): 부산의 해안가 마을, 지표로 보는 부산, 피란수도 시리즈(Ⅳ): 피란수도 음식문화 중 택
분량	• A4 약 100매 내외	• A4 약 100매 내외
지원규모	• 각 2000만원(2과제)	• 약 1700만원(1과제)

<출처> 부산연구원(www.bdi.re.kr)

[표 4-11]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사업 선정 연구

사업연도	사업제목	분야 및 주제
2020년	2020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학 교양총서: 창고의 사회사가 말해주는 해양도시 부산, 여행으로 살펴보는 부산정체성 중 택 부산학 연구총서: 피란수도 시리즈(Ⅳ):피란수도 음식문화, 마을의 미래(Ⅳ):00마을의 미래 중 택
2021년	2021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학 교양총서: 부산의 골목(동네산책, 부산의 언어-부산 사투리 중 택) 부산학 시민총서: 산업화 시대의 부산, 부산의 스포츠-부산갈매기들의 야구이야기 중 택 부산학 연구총서: 마을의 미래(Ⅴ): 부산의 해안가 마을, 지표로 보는 부산, 피란수도 시리즈(Ⅳ): 피란수도 음식문화 중 택

<출처> 부산연구원(www.bdi.re.kr)

(2) 학술·교육 사업

부산학연구센터의 학술사업은 부산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주제로 하되, 시민 친화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명인을 초빙하여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중 친화적으로 다가가며 부산 지역의 특징을 학문이 아닌 친근하고 현실적인 부산의 이야기로 다룬다. 또 부산학포럼의 경우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하며 더 많은 참여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기획되고 있으며 연구자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표 4-12] 부산학연구센터 학술 사업

사업연도	사업제목	내용
2016	부산학 2016 북콘서트	이전 해 발간된 부산학 총서 성과를 집필진 직접 시민과 나누며(4주제, 4차례 개최), 부산 관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함
2018	부산학 2018 북콘서트 '이바구SHOW-그때, 가~서, 우린 뭘 했을까?'	부산인의 장소습관을 주제로 하며 유명인과 함께 부산학 및 부산학 총서에 관한 여러 이야기와 연구 성과를 나눔
2020	부산학 포럼 '시대를 이겨낸 부산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음식을 주제로 한 유명인들 및 시청자의 토론 •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이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영상과 실시간 채팅창 결합) 개최
2020	부산학 포럼 '경험과 장소성으로 본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 유튜브 채널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 개최

<출처> 부산연구원(www.bdi.re.kr), 부산학연구센터 내부자료

(4) 협력관계

전국 20여개 지역의 지역학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부산지역 학 뿐 아니라 전·후반기 한국지역학 포럼을 통해 전국 지역학 기관들과 지역학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부산 지역 협력기관으로는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민학회 등이 있으며 지역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산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3] 부산학연구센터 협력관계

구분	세부내용
지역학 네트워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0여개의 지역의 지역학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함 • 전국의 지역학연구기관들이 매년 전·후반기에 한국지역학 포럼을 통해 지역학에 대하여 토론함
지역 협력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리대학교 부산학센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민학회 등 지역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산학의 중심센터를 수행함

〈자료〉 부산학연구센터 내부자료

6) 특징

부산연구원 내 연구직들은 부산학연구센터 설립 이전부터 부산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고 설립초기 부산의 자립과 도시 간 경쟁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부산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센터 설립 초기에는 전담 연구원이 있어 내부 연구량이 많았으나 현재는 예산도 적고 전 센터 조직원이 겸직으로, 연구의 확장이 어려움이 있어 직접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연구를 지원하거나 발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부산학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있으며 공모과제는 적지만 지원금이 큰 편이다. 또한 시민 친화적 학술 행사를 통해 유명인과의 ‘북콘서트’ 형식으로 시민친화적이고 대중적으로 부산학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학제적인 부산학 연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3. 수원학연구센터

1) 설립과 비전

수원학연구센터는 수원시정연구원이 2013년 3월 개원하고 이듬해 2월에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원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인문학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연구원 내 부설기관으로 개원하였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

사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수원시의 산하기관이며 수원학연구센터는 그 부설기관이다. 초기 수원지역 박물관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2) 운영과 조직구성

수원학연구센터는 2014년도 설립 당시 3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 박사급 연구인력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5명의 정규 인원이 센터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실적 및 평가체계에 대한 한계로 인해 유지되지 못하고, 21년도 현재는 정규인력 2인과 위촉연구원, 주임 및 조사원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학연구센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내 수원학에 관한 사업과 공지를 전하는 메뉴가 별도로 있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표 4-14] 수원학연구센터 운영 조직 업무분장

직책	역할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학연구센터 업무총괄(센터장 직무대행) 수원학 아카이브 및 편찬사업 수원학총서 발간 정기학술대회(수원학심포지엄) 총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학 아카이브 및 편찬 수원학 정기학술지 및 학술지 편집위원회 관리 마을지 및 구술채록 관련 사업
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학연구센터 업무
위촉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학연구센터 업무
위촉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사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출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3) 예산 및 시설(공간)

수원학연구센터는 수원시정연구원 내 별도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예산은 약 3~5억 원 규모이다.

[표 4-15] 수원학연구센터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원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인문학도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 위함
조직	연구원 2인, 위촉연구원 2인, 주임 1인 그 외 조사원 인력
공간	수원시정연구원 내 별도공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1억 원 • 2021년 5.4억 원

<자료> 수원학연구센터 내부자료

4) 연구 및 아카이빙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학술지 「수원학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연구 논문 형식의 원고를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게재 확정된 논문은 연구지원비로써 원고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연구 주제는 수원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수원의 도시, 조경, 건축, 교통 등의 학문 분야, 수원학 및 각 지역학, 도시학 연구방법론 및 연구사, 수원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의 관계 연구 등 수원을 중심으로 폭넓은 범위이며, 특히 여기에서 ‘수원’은 행정구역상의 수원이 아닌 문화권의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수원에 속했던 화성과 오산 지역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한다. 발행은 수원시정연구원이지만, 수원학연구센터가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3]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내 수원학연구센터 페이지



[표 4-16] 학술지 「수원학연구」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연구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의 문학, 역사, 지리, 풍속, 예술, 사회, 정치, 행정, 경제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수원의 도시, 조경, 건축, 교통 등의 학문분야 수원학 및 각 지역학·도시학 연구방법론 및 연구사 수원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관계연구 ※ '수원'은 현재의 행정구역에 한하지 않으며, 문화권의 개념으로서 역사적으로 수원에 속했거나 동일 생활권이었던 수원, 화성, 오산 등을 포함함
발간	연 2회 (6월, 12월)
지원	편당 200만 원

<출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표 4-17] 「수원학연구」 제 16호, 제7호 (2020) 연구 리스트

구분	내용
제 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왕길비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연구 전통시장 외식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시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정조대 궁중기록화의 수원화성 산수 표현 질병·의료획득이 수원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감의 매개효과
제 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팔달문과 수원향교에 사용된 철정의 재료와 제작기술 비교연구 일제강점기 수원의 학생 조직과 활동 : 수원학생친목회와 수원학생회를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선으로 살펴본 주거 빈곤과 개선전략: 수원을 중심으로 수원시 저층주거지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 화성궐리사 공자 성적도 연구

<출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또 수원학연구센터는 수원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방대한 양의 수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중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는 않으나, 보유하고 있는 수원 지역 아카이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고 그 자료들의 개요를 리스트화 하여 파일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따라서 수원 아카이브 자료 중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업로드 된 리스트 파일을 통해 자료 보유 여부 확인 후 수원학연구센터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수록범위는 190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원학과 관련한 학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망라하였으며 수원 지역과 수원 문화권의 개념으로 넓은 지리적 범위의 자료를 포괄하였다. 공개된 수원 지역 아카이빙 자료의 제목 리스트는 총류, 역사·지리·지식, 정치·행정·사법, 경제·산업, 사회, 문화·예술, 교육, 자연과학·자연환경으로 분류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자료의 제목만 빼곡이 적혀 있음에도 400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양으로, 수원학연구센터의 지역 아카이빙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도 채록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공개된 일부 자료(전근대 수원 자료집 제 1~15권)와 수원 아카이빙 DB자료는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수원학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중 일부는 단행본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1) 연구 지원 사업

수원학연구센터는 수원학 연구의 진흥과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수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를 지원한다. 수원 관련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 연구 및 저술, 번역 혹은 수원 관내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수원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을 지원하며, 총 4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구 지원을 통해 수원학을 활성화하고,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며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를 지향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교수 및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를 선정하며 특히 ‘수원’을 문화권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역사적으로 수원에 속했거나 동일 생활권이었던 수원, 화성, 오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역을 보다 넓게 이해하는 지역 연구를 꾀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는 연구·저술·번역 분야와 자료조사 및 수집 분야로 나뉜다.

[표 4-18] 2020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저술, 번역 수원 관련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분야 연구 및 저술, 번역 지원 자료조사 및 수집 수원 관내에 산재해 있는 근현대 수원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 지원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900만 원 이내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대학 교수 및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연구경력 혹은 관련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5년 이상)하여 연구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표 4-19]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제

구분	2019년	2020년
선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제고(城制考)」역주(譯註) 연구 수원 관련 한문·산문 작품의 수집, 번역 연구: 기문과 상량문을 중심으로 수원 작물품종 개발 관련 농학자 구술조사 수원 관련 운문분야 근대문학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용영대절목 번역 연구 정조를 위한 교육서 정사취감 역주 해평윤씨 윤학영 가문 소장자료 조사 및 수집 수원 시의원들의 지역활동과 의회활동에 대한 구술사 연구

<출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

(2) 교육 사업

수원학연구센터는 매해 수원 지역 내 대학에 ‘수원학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생의 수원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지역정체성 향상을 위해 정규 수업과 체험, 특강을 조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지역학, 수원화성과 인문학, 실학과 화성의 과학성,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하며 현재 아주대, 협성대, 경희대, 경기대, 한신대에서 수원학 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예산은 약 4천만원 규모이다.

[표 4-20] 수원학 강의 수업 커리큘럼 (2019년)

구분	주별 계획
경기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학과 강좌 오리엔테이션/수원학의 성립과 연구동향 수원의 역사와 문화유산 스토리텔링과 수원지역 콘텐츠 개발 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답사 정조의 화성 축성과 교통, 통신

	6. 화성 행궁 답사(현장답사) 7. 세계의 성곽/화성과의 비교-중국의 성곽 탐방 8. 세계의 성곽/화성과의 비교-일본의 성곽 탐방/중간고사 9. 세계의 성곽/화성과의 비교-유럽의 성곽 탐방 10. 정조시대의 문화와 문학 11. 용건릉과 용주사 답사 12. 근대시기의 수원 13. 현재의 수원사회와 문화 14. 수원지역의 민속과 민요/수원지역 콘텐츠개발과 발표 15. 기말고사 및 과제발표
한신대	1. 강의소개, 수원지역학의 의의 2. 수원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고대유적 3. 수원의 외성, 독산성 답사 4. 사도세자와 정조 5. 정조 왕릉답사 6. 화성행궁과 화령전 답사 7. 축만제, 향미정 답사 8. 중간고사 9. 정조의 현릉원행차 이야기 10. 화성성역의 의의 11. 제암리 유적답사 12. 수원지역 3.1운동의 성격 13. 답사리포트 발표 14. 답사리포트 심사 15. 기말고사

<출처> 수원학연구센터 내부자료

(3) 기타 사업

2021년 수원학연구센터는 꾸준히 학술지 및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발간을 기획하고 있다. 자료총서 「장용영대절목」 과 수원학 연구총서인데, 「장용영대절목」 이란 조선 시대 정조연간에 운영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장용영³⁷⁾의 제원을 기록한 요람 형식의 책이며, 수원학 연구총서는 수원 시의원들의 지역활동과 의회활동에 대한 구술사 연구서이다. 학술회의 수원학 심포지엄은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수원학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다양한 수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마을조사, 구술채록 및 발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2021년 기준 고색동 마을조사 사업, 산업화기 수원의 산업과 노동문화 구술채록 사업, 망포동 마을지 발간, 한국전쟁 구술자료집 발간 등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주력 사업이다.

37) 1793년 수원에 설치되었음

6) 특징

수원학연구센터는 고양학센터와 같이 시정연구원 부설 기관이다. 수원학연구센터는 박물관에서 수원학을 오래 연구해오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수원지역 박물관 및 수원 관내 지역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이용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력으로 정규인력 2명과 위촉연구원, 조사원 인력이 있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내 독립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학술지 「수원학연구」를 매년 발간 중이며 수원학 연구의 진흥과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수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대학과 연계하여 수원학 강좌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을 시작으로 센터 설립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자료로 아카이빙 규모가 방대하며 꾸준히 채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수원학연구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관련 단행본을 다양하게 편찬함으로써 수원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4. 공주학연구원

1) 설립과 비전

2014년 4월 공주시와 국립 공주대학교가 협력하여 공주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학문적으로 개발 및 보존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 기관의 협약 아래 공주대학교 부속기관으로서 공주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³⁸⁾ 그리고 2015년 5월, 공주시에서 지원한 공주학연구원의 건물이 개관되었다. 공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긴 시간 정치적, 군사적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생산된 공주의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나아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공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8) 고순영(2020).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표 4-21] 공주학연구원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공주학연구원은 공주학을 통해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공주시의 지원 아래 국립공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
방향	대학의 전문가와 시 행정과 시민의 중간에서 서로가 갖는 힘과 역할을 조정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함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공주시와 공주학연구센터 건립 협약 체결 • 2014년 공주학연구원 설립(안) 확정 • 2014년 공주학연구원 개원 • 2015년 공주학연구원 신축건물 완공 • 2015년 공주학연구원 개관
업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공주학 관련 역사 문화 자료의 조사와 연구 • 공주지역 정책 개발, 문화유산 활용 및 문화 예술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공주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들의 교육 문화 활동 지원 • 공주 지역 관광자원 개발, 지역 축제, 국제 시민교류 등 상호 협력 지원 • 공주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 공주시 및 지역 소재 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 • 교내외 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그 밖에 공주시와 본 대학교의 공동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공간	공주대학교 내 공주학연구원 운영 목적으로 독립된 신규 건물 개관

<자료> 공주학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4-4]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2) 운영과 조직구성

공주학연구원은 공주대학교 학내 개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이 처음부터 공주학 연구, 공주 아카이빙, 공주학 교육으로 분명한 만큼 운영 조직구성이 명확하며 원장, 실장, 부장 등 보직은 공주대 관련 교수가 겸임하나, 연구직은 공주학연구원 전담 인력이다. 지역학 연구원 혹은 센터로서 인력 규모가 큰 편이다.

[표 4-22] 공주학연구원 운영 조직 업무분장

직책		역할
	원장	공주학연구원 총괄
공주학자료실	자료실장	공주학자료실 업무 총괄
	전문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기획 및 운영
	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연구 및 콘텐츠 개발, 홍보
	연구보조원	공주학아카이브 기증자료 등록 및 관리, 전시 및 총서간행 업무
	연구보조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관련 자료 수집/정리
교육사업부	교육사업부장	교육사업부 업무 총괄
	연구원	교육 및 기타사업 등
	연구원	교육 및 기타사업 등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부장	조사연구부 업무 총괄
	전문연구원	연구용역 및 기타 사업 등
	연구원	연구용역 및 기타 사업 등
행정실	팀장	행정실 업무 총괄
	직원	공주학연구원 행정업무 전반
	사무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회계업무 등

<출처>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3) 시설(공간)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시의 지원을 받아 공주대학교 캠퍼스 내에 공주학연구원 건물을 새로 건립하였다. 이는 공주학연구원이 추가적 혹은 부수적 기관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학내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많은 경우 지역학 연구원이 한 기관의 부설로 설립되어 공간도 그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없는 현실과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공간과 행정실 뿐 아니라 아카이브실,

자료실, 문서고, 세미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림 4-5] 공주학연구원 시설 및 공간 사용



<출처>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4) 연구 및 아카이빙

공주학연구원의 아카이빙 규모와 운영, 자료수집과정의 체계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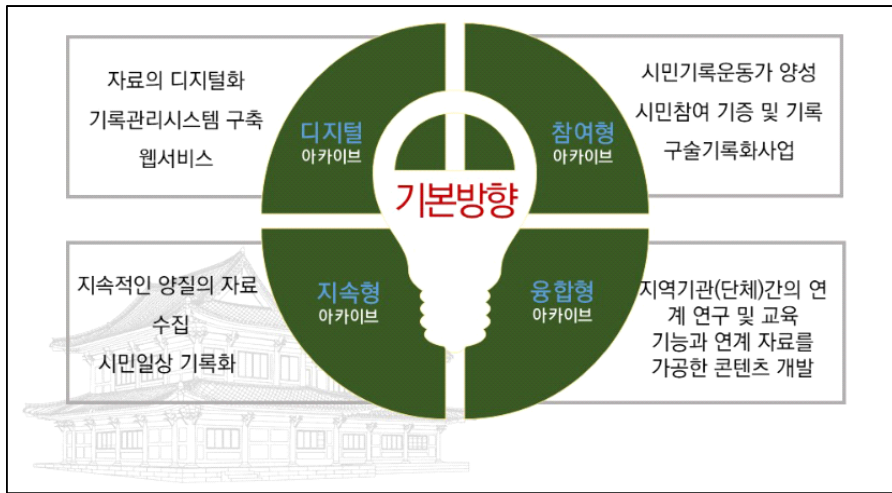
공주학 아카이브에 대한 계획은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협약에 따라 공주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원 설립 1년 후인 2015년부터 본격적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1차년도(9개월) 사업보조에 대한 승인을 시작으로, 매년 안정적 보조금 지원하에 2020년 기준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2억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학 지역학 연구소의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서는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사업 규모가 크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공주학 아카이브는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주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사적 기록물뿐 아니라 지리, 환경, 산업, 관광, 언어, 교육, 행정,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카이브의 기본 방향을 디지털 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 지속형 아카이브, 융합

형 아카이브로 설정하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웹서비스 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시민의 자료 기증 권면 및 시민 기록운동가 양성,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시민일상 기록, 지역 기관 연계 연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4-6]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기본방향



<출처>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2) 아카이빙 구축 전략 및 자료수집³⁹⁾

공주학연구원은 지방의 공적 보조금을 받아 수행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의 기간 중 최대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주학 아카이브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7만여 건이며 형태는 대부분 민간기록물이고 분야는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공주학 아카이브에서 세운 첫 번째 수집전략은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총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공주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된 목록에 의존하여 수집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수집

39) 고순영(2020).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전략은 선택·집중적 수집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주의 정체성이 담긴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관한 내용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공주의 정체성은 역사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키워드는 계룡산, 공산성, 금강, 제민천, 백제문화제, 공주대학교, 공주여사범학교 등이다. 이 단계에는 공주라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함으로써 편향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집전략은 협력이다. 오랜 기간 향촌사회활동을 하며 공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지역 전문가와 접촉하거나,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교도소 및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사자료, 초중고 학교의 역사자료실,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경우 역사만큼 많은 소장 기록물이 있는데,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협약 등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표 4-23】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전략

구분		내용
예비조사 및 총목록 작성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시립도서관이나 연구기관, 국가정보시설로부터 각종 형태를 막론하여 공주기록물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수집활동 개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수집 및 DB화 된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수집의 폭을 좁힐 수 있음
선택·집중적 수집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의 지역적 정체성이 담긴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수집 공주의 정체성: 역사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의 도시 이러한 정체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요 연관 주제(키워드)를 설정하여 자료 수집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범위 안에서의 수집은 공주라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미리 정하고 편향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 정체성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
주요소장처와의 접촉을 통한 수집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랜 기간 향촌사회활동을 하며 공주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 접촉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수집 예를 들어, 교도소 및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역사자료, 초중고 학교의 역사자료실,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경우 역사만큼 많은 소장 기록물이 있는데,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한 불인식과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협약 등의 형식을 빌려 자료 상호 공유

〈출처〉 고순영(2020).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표 4-24] 공주학 아카이브 사업 진행

구분	내용
1차년(2015년)	수집활동
2차년(2016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정리)
3차년(2017년)	홈페이지 구축(서비스)
4차년(2018년)	기록콘텐츠 개발(활용 및 연구)

〈출처〉 고순영(2020).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이러한 전략과 원칙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도서관행물, 문서, 사진, 시청각자료를 비롯하여 공주시민들 구술채록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특히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참여형 아카이브 원칙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주의 기록 ‘기증’ 팝업을 띄우고 적극적으로 공주학에 관한 시민의 기록을 모집하고 있다.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것은 발굴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공주의 자료를 한 곳으로 집적한다는 구축의 목적도 있으므로 기록물의 원본 뿐 아니라 사본까지 직접 수집하거나 기 수집기관 웹사이트의 목록 링크를 통해 수집을 확대하고 있다.

(3) 자료의 정리

위의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형태, 주제, 출처, 시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공개정보에 한하여 그 자료의 메타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최근 5차 년도 즈음하여 공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과 동시에 기록물 메타정보 항목에 위치정보(경도, 위도)를 기입하여 웹지도에 표기, 공주 지역 안에서도 어느 지역의 자료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 현대식으로 아카이브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4-25] 공주학 아카이브 자료 정리와 분류

구분	내용
형태 분류	도서간행물, 사진류,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관류, 구술채록
주제 분류	총류, 읍면자료, 지리·환경, 민간신앙·민속, 역사·유적·인물, 교육, 지역개발·관광, 문화·예술·언론, 종교·언어, 정치·행정, 경제·산업, 타지역학
메타정보 기입	기본, 수집, 생산, 분류, 형태, 기술,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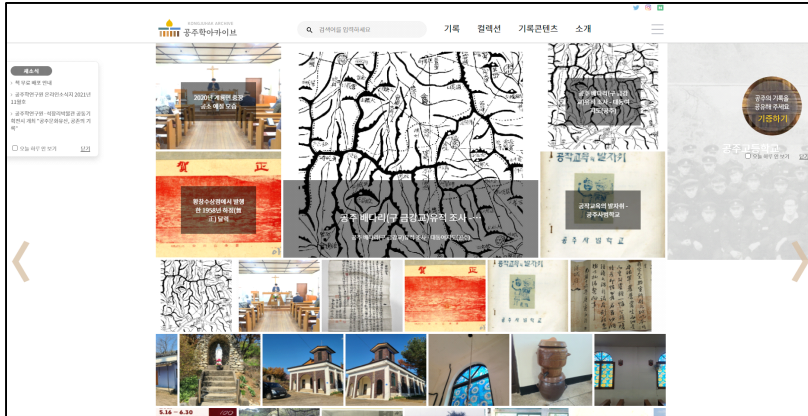
<출처>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4) 자료공개와 확장

축적된 아카이브는 공주학연구원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웹페이지⁴⁰⁾를 통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자료수집의 형태가 문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공주학에 대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는데, 원자료를 기초로 활용하여 콘텐츠를 재생산함으로써 아카이브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4가지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공주학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한 VR콘텐츠를 제작하여 과거와 현재를 한곳에 재현하였다. 또 웹툰 형식의 ‘그랫슈통신’, 영상콘텐츠 ‘고미뉴스’ 카드뉴스 ‘월간공주’를 통해 공주학 아카이빙 자료를 있는 그대로만 게시하는 것이 아닌 기록물을 통해 증명하는 콘텐츠를 지향함으로써 기록물 수집의 중요성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집 자료의 경우 선술하듯 지도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며, 공주 안에서의 특정적 지역의 기록을 볼 수 있어 홈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같이 구축되어 있다.

40) 공주학아카이브(kjha.kongju.ac.kr)

[그림 4-7] 공주학이카이프 홈페이지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1) 출판 지원 사업

공주학연구원은 출판 지원의 형태로 공주학 연구를 지원한다. 공주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공모 분야이며, 출간되지 않은 원고 중 2종을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하여 2년째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표 4-26] 공주학연구원 공주 양서출판 지원공모 사업

사업연도	2020년, 2021년
공모주제	출간되지 않았던 공주와 관련된 자유 주제의 도서용 원고
참가자격	공주와 관련된 소재의 책을 출판하고 싶은 누구나
분야	공주의 역사, 자연환경, 유물·유적, 민속, 학술, 행정 등
유형	도서, 도감, 사진첩, 칼럼집 등(시, 소설, 희곡, 수필 등 순수창작물 제외)
선정	완성된 형태의 작품 2종 출판 지원

<출처>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gs.kongju.ac.kr>

(2) 교육 사업

공주학 교육 사업은 공주에 대한 자료 정리, 연구와 함께 공주학연구원의 중점 사업

이다. 개발한 자료를 이용한 교육을 통해 공주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공주학 교재를 개발하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또 반대로 공주에 묻혀 있는 다양한 자료를 시민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시민 중심의 교육으로 재현한다. 시민을 교육의 객체로부터 주체로 세워가는 것이 공주학 교육의 근본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주학 광장, 공주학 포럼, 공주학 연구투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3) 기타 사업

참여형 공주학을 지향하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표 4-27] 공주학연구원 기타 사업 (2021년)

사업명	내용
테마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지역문화관광 활용 콘텐츠 교육, 축제이벤트경영 자격증 과정, 코디네이터 현장실무 교육 등을 포함하여 지역 테마관광 인재를 키우고자 함
공주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공주시에서 거주하거나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찾아 관계를 쌓고 공주시의 문화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공주역사인물 SNS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이달의 공주역사인물'사업의 일환으로써, 공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함
공주항일독립운동 학술세미나	공주지역 독립운동, 충남지역 독립운동에 대해 심화적으로 교류하고자 함

<출처>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gs.kongju.ac.kr>

6) 특징

공주학연구원은 공주시의 안정적 지원 아래 매우 활발하게 공주학 연구와 공주학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학 연구 기관이다. 특히 다른 지역학센터와 달리 공주학 연구원을 위한 개별 건물과 안정적 전담 연구 인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는 공주학 확립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특히 홈페이지가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연구원의 활발한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공주학연구원 고유의 홈페이지는 물론,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여 메타정보를 이용한 7만 여건 이상의 공주 지역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영상, 웹툰, VR체험 등 공주 지역 아카이브 자료를 기초로 활용한 다양한 2차 생산물을 통해 기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지향함으로써 현시대 지역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폭넓게 알리고 있는 점이 모범적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현재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정책 지향적이고 대학 내 기관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5. 서울학연구소

1) 설립과 비전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서울학을 육성·확산하기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부설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근거를 두었으며 3개의 위원회(운영위원회, 「서울학연구」 편집위원회, 「서울학연구」 윤리위원회)와 3개의 부서(연구기획부, 자료탐사부, 학술교류부)로 구성되어 설립되었다. 과거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서울학’의 연구 대상은 도시 서울이며, 서울학은 서울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서울이 지닌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의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며 서울에 대한 여러 기성학문 분야(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건축 및 도시계획학 등)연구관심과 성과가 상호조명되고 교차되는 데에 서울학의 영역이 있다고 보고 서울학의 학문적 관심은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지만, 그 실천적 관심은 현재의 서울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데에 있다.

2) 운영과 조직구성

초기 서울학연구소는 교내외의 학계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발전위원회와 교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기획학술부, 연구탐사부, 시민생활교육부의 실무기구를 둔

체제로 출범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서울 600년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과도한 증가로 전문위원회가 사실상 연구소의 전체사업을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연구소 체제가 정비되고 내실 위주로 운영되면서부터는 전문위원회보다는 실무기구의 역할이 중시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1998년부터는 시민문화 대학이 본교 직속의 서울시민대학으로 이관되고, 서울 사료탐사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시민 생활기록부를 폐지하고 자료실을 신설하여 학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중 임명된 소장 1인이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내부 조직인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의 센터장 1인과 수석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연구교수 2인이 서울학연구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로부터 이관되어 서울학연구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3) 예산 및 시설(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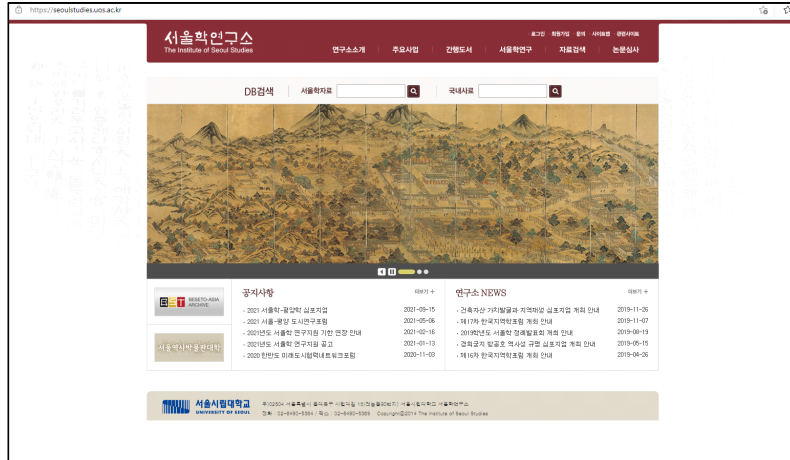
서울학연구소의 2021년 예산 약 4억 1천만원 규모이며 공간은 서울시립대학교 내 경농관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표 4-28] 서울학연구소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서울학을 육성 및 확장시킬 목적으로 1993년 6월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설립
방향 및 비전	서울학은 서울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서울이 지닌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함
주요 연혁	1993년 6월 : 서울학연구소 설립 2010년 9월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선정 (~2019년 8월) 2021년 2월 :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 대학본부로부터 이관
조직	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겸직) 1인, 센터장 1인, 수석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연구교수 2인
공간	서울시립대학교 내
예산	약 4억 1천만원(2021년)

<출처> 서울학연구소(seoulstudies.uos.ac.kr) 및 서울학연구소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4-8] 서울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4) 연구 및 아카이빙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연 4회 학술지 『서울학연구』를 간행한다. 『서울학연구』는 1994년 3월에 창간하여 2005년 KCI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2006년에 등재지가 되었으나 2018년에 등재후보지로 하락하였으며 이듬해 2019년에는 등재후보지의 지위를 잃었다. 그 후 2020년부터는 다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등재후보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4권이 발행되었다. 아카이빙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표 4-29] 서울학연구소 정기간행물 『서울학연구』 연구 현황 (2020~2021년)

구분	내용
서울학연구 84 (2021. 8.)	민족의 미래 자산 평양음악 유산: 국립국악원 북한음악자료의 수집·공개·활용을 중심으로
	평양의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조선 한양의 주요시설과 도시경관
	근대이행기 서울의 도시경관 변화와 주민의식 -'거리(街)'의 표상 변화를 중심으로-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통치의 장으로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편 과정
서울학연구 83 (2021.5.)	관촌 조진우의 평양 유람과 황권 형식 평양도
	태조·세종시기 한양도성 천자문 각자성석에 관한 연구
	개성 일대의 고려 유적 발굴조사 현황과 연구 성과
	개경민의 불교신앙생활과 불교시설
	고려 개경의 경제 공간과 교통로
	고려시대 개경민의 주거 문제와 생활 공간
고려왕조의 수도 개경의 특징과 위상	

구분	내용
서울학연구 82 (2021.2.)	서울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기능 19세기말 동서사상의 지평융합 공간으로서 한양의 문화지리적 의미 - 유길준과 윤치호의 정치적 사상적 활동을 중심으로 - 문학을 통해 살펴본 문화적 원체험지로서의 종로와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서울학연구 81 (2020.11.)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親政)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서울시민회관의 공공극장 운영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상주단체인 서울민속가극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80 (2020.8.)	정선의 《양천십경첩》 연구: 정선의 새로운 자아 표상과 예술 전략 한양도성 복원 현황과 개선 방향 - 진정성과 완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 철도 건설과 중국 동북지역 내 심양(奉天)과 안동(丹東)의 근대 도시화과정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 - 도시구성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79 (2020.5.)	1905-45年の中国東北における都市建設と 建築—瀋陽と長春の事例 1978年以来北京城市的发展变化 Borders as Urbanism: A Preliminary Study on Realigning Border Rivers as Productive Spaces 서울-평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안 〈바람 부는 시절〉에 반영된 ‘서울(경성)’의 형상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서울과 농촌의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서울학연구 78 (2020.2.)	조선 전기 궁궐의 ‘大內’에 대한 연구 영화와 가치, 폐기된 계몽의 극장 1960년대 서울의 시범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Asia Foundation Records 1951-1996」 자료를 중심으로 - 경성의 주택난과 일본인 대가업자들 - 본정대가조합을 중심으로

<자료>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seoulstudies.uos.ac.kr

사료 탐사는 국내외 각종 기관 및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 관련 희귀자료를 직접 탐사하는 방식(발굴자료탐사)과 연대기 등의 중요 사료에서 서울 관련 기사를 추출, 정리, 색인화하는 방식(기초사료탐사)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탐사의 성과는 모두 DB 화하여 자료의 검색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2014년도이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간행도서는 연구총서 15권, 교양총서 7권, 사료총서 10권, 색인·목록집(기사 색인, 논저목록집 등) 10개 분류, 미디어 총서, 번역총서, 서울학 모노그래프, 공저 및 기타이며 각각 나누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⁴¹⁾

41) 가장 최신 등록일이 2014년 6월 19일(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개시 시기로) 최근 간행물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다.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1) 연구 지원 사업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서울학 전문 연구자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학 관련 연구자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연구비를 보조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학 연구지원 사업을 매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행정, 생활, 풍속, 민속, 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 등 서울을 대상으로 한 전분야와 서울의 역사 혹은 전통과 관련된 각 분야의 기초 연구, 그밖에 서울학 및 도시학 연구방법론 및 연구사 등 넓은 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꾸준히 8건 내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표 4-30】 서울학연구소 2019~2020년 서울학 연구지원 과제

구분	내용
2018년	일제강점기 은세공상회를 통해 본 종로의 공간성과 형성배경
	시대별 한국 문학작품에 표출된 서울의 장소성 연구
	조선시대 한강 유역 사전(祀典)의 제단(祭壇)과 기우제 터에 대한 연구
	조선후기 都監의 설치 장소와 公廨 활용
	조선후기 市廛人과 貢人의 병존과 상호 유사성 증대
	16~17세기 화담학파의 계보학-행촌 민순의 문인들 중심으로
	서울 종로 2가 가로변 상업건축물들의 입면 리노베이션과 그 의미
2019년	식민지시기 경성 지역에서 이루어진 어린이 문화의 실상과 활용 방안
	서울 지역의 오버투어즘 현상 연구 : 비판적 실재론 관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1940년대 조선 대중극에 나타나는 ‘서울’ 대(對) ‘지역’의 이분 구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서울의 ‘시범도시계획(Pilot project)’에 대한 연구 - 「Asia Foundation Records 1951-1996」 자료를 중심으로-
	1940년대 방공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성)의 도시 개조에 관한 연구
	서울 宋洞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장소성 - 우암 송시열의 위상과 추송화와 관련하여
	일제말 경성의 주택난과 朝鮮貸家組合令 - 本町貸家組合을 중심으로
2020년	1920-30년대 경성의 서양음악회를 둘러싼 음악생산과 수용 양상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구역 공간구획 변화에 관한 추정 연구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 한강이남 영유설에 대한 새로운 비판
	정선의 《양천십경첩(陽川十景帖)》 연구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親政) -신라의 국내외 정세와 국정운영을 중심으로 -

구분	내용
	현대시에 나타난 문화적 원형지로서의 종로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서울학의 확산과 심화: 한국학과 교육학의 콜라보레이션
	19세기말 동서사상 지평융합 공간으로서 한양의 문화사적 의미 - 문명개화파 유길준과 윤치호의 정치적 사상적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시계 골목의 형성 과정과 사회적 기능
	서울시민회관의 운영과 서울민속가극단의 대중 지향성에 대한 연구 - 시민회관 전속공연단체인 서울민속가극단 활동상을 중심으로

<자료> 서울학 연구소 홈페이지, seoulstudies.uos.ac.kr

(2) 학술회의 개최

서울학연구소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및 서울-평양 도시연구포럼, 동북아 역사도시연구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표 4-31] 서울학연구소 개최 학술회의

개최연도	회의명	협력
2021	2021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2021	2021 서울-평양 도시연구포럼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2020	2020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포럼 - 남북평화협력 패러다임 전환과 서울형 남북도시 교류협력 구상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2020	2020 서울학연구소-(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공동 웹세미나 - 서울과 평양 주민들의 경제생활: 서울의 전통시장과 평양의 장마당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2020	2020 동북아 역사도시연구 심포지엄	
2019	2019년도 서울학 심포지엄 - 철도와 도시문화, 120년의 기억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8	2018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엄 - 식민지기 일본의 경성구상 ; 1925년 전후 조성된 서울의 근대시설이 갖는 함의	
2018	2018 서울학통섭전공 강좌 답사	

<자료>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seoulstudies.uos.ac.kr

(3) 교육 사업

서울학연구소는 1993년 시민문화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학’ 교양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표 4-32] 서울학연구소 기타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서울학 연구지원
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학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및 포럼 정기적 개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3년 시민문화대학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교양 강좌 진행
남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 이관 이후 ‘평양학’ 연구 및 남북 교류 탐구 2021년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2021년 서울-평양 도시연구포럼 개최

<자료>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 seoulstudies.uos.ac.kr

(4) 협력관계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1998년 북경연합대학에 설립된 북경학연구소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2012년 ‘한국 지역학 포럼’ 개최 이래 인천학, 부산학, 제주학 등 국내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그밖에 최근 남북교류에 관한 지평 확장과 더불어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표 4-33] 서울학연구소 협력관계

구분	내용
국외(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경학연구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학, 부산학, 제주학 등 지역학 관련 연구기관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자료> 내부자료

6) 특징

전상운(1994)은 서울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적

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데 도시는 역사의 증인이며 역사적 성과는 도시에 누적되어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도시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학 연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서만 지역사회의 자주관리, 민주적 통치에 입각한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방향도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초기 서울학연구소가 서울학의 신진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 관련 사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사료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⁴²⁾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학연구소 사업 및 연구를 살펴보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서울학 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서울학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소 초기 목적을 큰 부분 달성한 실적이다. 이는 서울학연구소가 공적 재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대학 내 부설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상 개방된 자료가 2014년이 마지막으로, 서울학 관련 DB가 얼마만큼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많은 지역학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아카이빙 사업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그러나 학술지 ‘서울학연구’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하락한 만큼, 앞으로 연구의 질적 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상징에 걸맞게 최근 ‘평양학’ 연구를 도모하는 등 남북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이는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가 서울학연구소로 이관되며 생긴 최근의 움직임인데 이는 서울의 지정학적·제도적 특징을 잘 살린 지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고양학에서도 접경 지역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이러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2) 전상운(1994). “서울학 연구와 발전방향.” 서울학연구, (1)

6. 경기학센터

1) 설립과 비전

경기학센터는 경기도 본청 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부설기관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이며, 1996년 10월 조례 제정, 1997년 7월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9년 4월에 경기문화재단 부설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이 설립되었고, 2008년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조직되어있던 경기학연구실이 2015년, 경기학연구센터로 독립하였다. 경기학연구센터는 그 전신인 전통문화연구실의 기본사업을 확장하여 경기도의 정신문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 보존, 전승,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체 사업 외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위·수탁, 보조, 용역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단순히 연구와 조사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학의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경기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킹으로 경기도의 정체성 규명과 확립,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을 내일에 전한다”는 미션 아래 (1)경기도 역사와 문화가 가진 고유한 지역성의 발굴, (2)경기 지역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고유가치의 개발 및 활용, (3)도민의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학센터는 ‘경기학’을 경기도 지역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적 성격의 용어로서, 인문·사회·자연 등 경기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학으로서의 경기학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역사·문화·사상·경제·지리를 비롯하여 도민의 의식과 삶도 그 대상이 된다고 정의한다.

[표 4-34] 경기학센터 개요

구분	내용
설립배경	2005년 경기도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역량 강화 및 경기문화재단의 (정관) 사업 중 '역사문화유산의 발굴 보존현대화' 및 '지방향토사 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정책실] --- B[정책파트] A --- C[경기학센터] A --- D[전문위원실] </pre> </div>
방향 및 비전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을 내일에 전한다” 1) 경기도 역사와 문화가 가진 고유한 지역성(Locality)의 발굴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고유가치의 개발 및 활용 3) 도민의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전통문화실 설치 (실) • 2009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실 설치 (실) • 2015년 문화유산본부 경기학연구센터 설립 (기관) • 2018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이관 (팀) • 2019년 대표직속 경기학연구센터 승격 (실) • 2020년 경기학센터로 명칭 변경

<출처> 경기문화재단(www.ggcf.kr) 및 경기학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2) 운영과 조직구성

경기학센터는 현재 3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35] 경기학센터 운영 조직

직책	역할
센터장 1인	경기학센터 업무 조정·관리 경기지역학 연구 활성화 - 경기 지역학 연구 활성화 공모지원 경기학 도서 발간 보급 -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 보급 - 대표인물 평전 발간 지역학 대외 네트워킹 사업 경기학 기획 행정 -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업무매뉴얼 관리
부장 1인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학 조사 연구 전국 광역단위 지역학 조사 연구 경기도 문화자원총서 기획 및 조사 연구 재단 발간 기록물 아카이빙

수석 1인	경기학 도서 발간 보급 - 경기도 역사문화총서 기획·발간 - 정기간행물 발간 문화자원 기록 보존 관리 -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 - 경기도 근현대 문화자원 목록화 - 자료실 관리·운영 경기지역학 연구 활성화 - 경기학 인문강좌 동영상 제작 - 경기학 콘텐츠 재가공대중화 추진
-------	---

<출처> 경기문화재단(www.ggcf.kr)

[그림 4-9]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페이지



3) 예산 및 시설(공간)

경기학센터는 주로 경기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4억 3천만원, 2020년 예산은 4억 9100만원, 2019년은 6억 5천만원으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학센터는 별도의 독립 공간을 사용한다.

[표 4-36] 경기학센터 예산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경기도 출연금	650,000	491,000	430,000
위탁사업	1,170,000		

<자료> 경기학센터 내부자료

4) 연구 및 아카이빙

최근 발간물 목록을 통해 경기학센터의 경기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술채록을 비롯한 마을 기록도 수행하고 있다. 경기학을 주제로 하는 보유 문헌의 규모는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10,900권 수준이다. 또한 지역학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목록화>와 시범 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⁴³⁾

[표 4-37] 경기학센터 발간 간행물 (2019~2021년 현재)

발간년	제목
2019년	경기도 역사여행 (사건편)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경기백성실록
	경기도의 여성인물
	경기도세거성씨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1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2
	경기도 근현대 생활문화 3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옛 경기를 읽다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유적조사보고서(번역본)
	경기학과 문중사 강좌 교재
	평택을 이해하고 디자인하다.
	수공업장인도시, 도농복합도시 안성의 전통과 미래
	포천 가산 마을지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휴)
경기학광장 1~3호	
2020년	경기도의 625
	신증동국여지 승람 속 경기도 고적 산천 사찰 역원
	사방의 근본, 경기관찰사의 성분과 역할
	일제 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1
	경기도 신도시 형성과 변천 자료집
동두천 기지촌의 화상과 기록	

43) 경기학센터 보도자료(2020.02.19.). “경기학을 통해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한다.”

	비라지의 고장 시흥
	안산과 함께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경기학(물)
	경기학광장 4~7호
2021년	도시의 두얼굴 경기도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기전지역의 봉수
	경기도의 태실
	경기학광장 8~10호

<출처> 내부자료,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5) 기타 사업 및 협력관계

경기학센터는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명칭 변경과 함께 경기학 연구의 활성화, 경기학 도서 발간 및 보급, 문화자원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 연구 지원 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학을 주제로 하고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 경기학”」 제목으로 하는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주제가 해를 거듭하며 구체화 되고 있으며, 단순히 보고서 형태의 연구 뿐 아니라 지역학 관련 학술 행사, 강좌, 포럼, 출판까지 공모 지원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주제를 한정하지 않아 조사 가능 범위가 매우 넓으며 2021년 기준 지원금액은 단체 300~600만원, 개인 100~300만원 규모(총 지원금 5,000만원)이다.

[표 4-38] 경기학(연구)센터 경기지역학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 개요

사업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제목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 경기학”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 경기학 2”	생기를 찾아가는 “명랑 경기학 3”
목적	한국사 기여에 의지하는 학문적 주변부성을 극복하고 연구주제의 범위를 넓혀가도록 돕기 위함	그동안 주류역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지역사의 특수성을 정통방식으로 조망하거나, 지역민과 지역 문화의 접속을 매개하고픈 뜻있는 연구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단체개인의 연구조사 활동 지원 경기학과 사군 지역학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경기지역학 연구 역량 결집

공모 주제	과거 주류역사학계에서 정밀하게 다루지지 못했던 '지역의 역사문화 연구 지역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주목하는 '근현대 생활과 문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지역학 관련 개방형 학술행사, 강좌운영, 출판에 대한 지원 • 개인: 자유주제 및 테마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지역학 관련 학술 연구·조사, 학술 행사, 강좌, 포럼, 출판 • 개인: 지역공동체
대상자	시·군 문화원, 민간지역학연구기관 등의 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연구자, 지역언론인, 시민기록자 등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시·군 소재 문화원 향토문화(지역학)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 • 개인: 사학전공자, 향토사학자, 시민기록자, 지역 언론인, 역사·문화 비평가 등 지역에 관심 있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시·군 문화원 및 소속 향토문화연구소, 지역학연구소, 민간 지역학 연구기관·단체 • 개인: 문화원·연구소·언론 등 기관 소속 개인, 지역연구자, 시민기록자, 프리랜서 등 지역학과 지역문화에 관심있는 누구나

<출처> 경기문화재단(www.ggcf.kr)

(2) 교육 사업

‘경기향토문화대학’, ‘경기옛길 기본과정 아카데미’ 등 다양한 과정을 매년 개설하여 경기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재를 제작하여 경기도 지역사 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학 연구자 양성과정을 통해 경기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표 4-39] 경기학센터 교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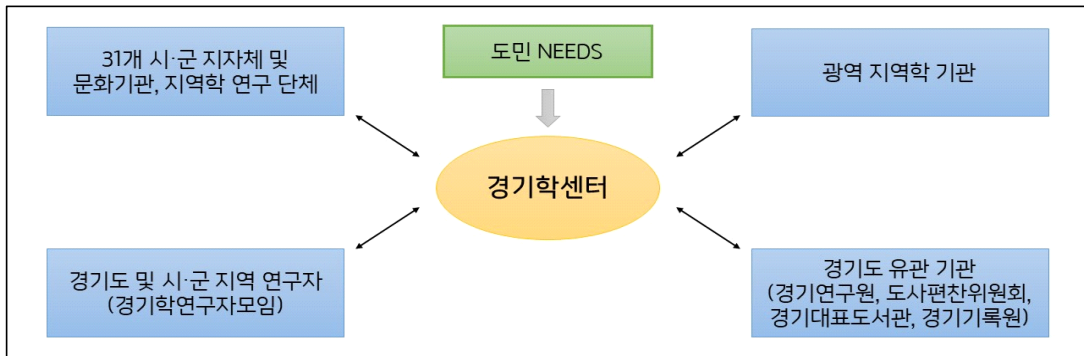
구분	내용
현재 사업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 및 배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지역사 공교육 • 지역학 교육 및 강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학 강좌 (매년 24강) - 지역학 연구자 양성과정 (매년 12강)
2020년 계획 ⁴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학 강좌> 상하반기 가평군 및 포천시 각각 개최 • <지역연구자양성과정> 고양시 진행 • <공감하는 경기학> 안산시·시흥시 공동 추진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제작 추진

<출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3) 협력관계

경기학센터는 31개 시·군 지자체 및 문화기관, 지역학 연구단체, 다른 광역 지역학 기관,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연구자(경기학연구자모임), 경기도 유관 기관(경기연구원, 도사편찬위원회, 경기대표도서관, 경기기록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학센터의 설립 취지와 같이 도민의 필요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10] 경기학센터 협력관계



<출처> 경기문화재단(www.ggcf.kr)

[표 4-40] 경기학센터 2020년 사업 방향

목표	역할
31개 시·군과의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학센터 업무 조정·관리 • 경기지역학 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지역학 연구 활성화 공모지원 • 경기학 도서 발간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 보급 - 대표인물 평전 발간 • 지역학 대외 네트워킹 사업 • 경기학 기획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업무매뉴얼 관리
지역연구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학 조사 연구 • 전국 광역단위 지역학 조사 연구 • 경기도 문화자원총서 기획 및 조사 연구 • 재단 발간 기록물 아카이빙

44) 경기학센터 보도자료(2020.02.19). “경기학을 통해 경기도 정체성을 확립한다.”

센터 역할과 위상 재정립 (경기학 진흥 거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학 도서 발간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역사문화총서 기획·발간 - 정기간행물 발간 • 문화자원 기록 보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현대 지역사회 기록화 - 경기도 근현대 문화자원 목록화 - 자료실 관리·운영 • 경기지역학 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학 인문강좌 동영상 제작 - 경기학 콘텐츠 재가공대중화 추진
---------------------------------------	---

<자료> 경기문화재단(www.ggcf.kr) 및 경기학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표 4-41] 경기학센터 추진 역점 사업

목적	세부 내용
경기학 연구 활성화	지역학 강좌 및 교육 사업, 경기학 조사 및 연구, 경기지역학 네트워킹
경기학 도서 발간 및 보급	경기 역사 및 문화 총서 발간,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 및 보급, 경기 대표인물 평전 발간, 정기간행물 계간, 경기학광장 발간
문화자원 기록·보존·관리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자료실 구축 및 운영

<자료> 경기문화재단(www.ggcf.kr) 및 경기학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6) 특징

경기학센터는 기존 명칭인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연구와 조사뿐만 아니라 ‘경기학’ 진흥과 활용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시에 재단의 중요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경기지역학 진흥을 위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교육사업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시행 지역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이를 위한 발간 사업 규모가 큰 것이 돋보인다. 경기도는 지역적 범위가 넓고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려워 경기학센터의 향후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대(附帶)지역’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과 넓은 네트워킹이 특징이다.

[표 4-42] 지역학 기관 개요 종합

센터명	제주학연구센터	부신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경기학센터
상위기관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립 공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문화재단
설립	2011	2003	2014	2014	1993	2005
설립 배경 및 목적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사회 자원 구축	부신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수원학, 정조학 등 역사 정신문화연구 및 편찬, 문화·인문학 도시 조성, 학술세미나 및 자료 발	공주학을 통한 공주의 정체성 확립과 공주의 발전 도모	서울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서울이 지닌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을 내일에는 전한다는 미션 아래 1. 경기도 역사와 문화가 가진 고유한 지역성 (Locality) 발굴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고유가치의 개발 및 활용 3. 도민의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비전 제시
배치 인력	센터장 1명 전문직 8명 행정직 2명 위촉연구원 및 연구보조 4명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내부 기획위원 3명 외부 기획인원 7명 (전담 직원 없음)	연구원 2명 주임 1명 위촉연구원 3명	원장 1명 전문연구직 5명 연구직 4명 연구보조원 2명 행정직 3명 (실장 1명, 부장 2명, 공주대 교수 겸직)	소장 1명 센터장 1명 수석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교수 2명	센터장 1명 부장 1명 수석 1명
	총 15명 (비상근 포함)	총 12명 (전원 겸임 혹은 외부 초빙)	총 6명	총 15명	총 7명 (비상근 포함)	총 3명
예산 (2021년)	16 억 1,250 만원	약 1 억원	약 5 억 4 천만원	12 억 1 천만원	약 4 억 1 천만원	약 4 억 3 천만원

센터명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경기학센터
상위관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립 공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문화재단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여평 규모 독립공간 사용 - 제주문화예술허관 재단의 한층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및 지역학 출판 서적을 보관하는 별도 공간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내 - 독립공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신규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학교 내 연구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내 독립공간
연구지원	매해 시행 (기회주제 1 건 2 천만원 자유주제 2 건 건당 1 천만원)	매해 시행 (1건 1,700 만원)	매해 시행 (매해 4 개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900 만원 내)	매해 시행	매해 시행 8 건 내외 건당 200 만원	매해 시행 지원금액은 단체 300-600 만원 개인 100-300 만원 규모 (총 지원금 5,000 만원)
학술대회	제주학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및 다수 연 3 회 내외	시민 진화적 부산학 포럼 및 북콘서트 연 2 회 내외	수원학 심포지엄 및 포럼 연 3 회 내외	공주학 세미나 연 1 회 내외	서울학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연 2 회 내외	경기학 학술대회 연 1 회 내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문화이커뮤니티, 제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강좌와, 제주학시민학교, 시민과 함께하는 고전강독회, 제주 신화학교, 제주학인물사강좌, 제주 고전강독회, 제주학이커뮤니티양성과정 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 대시민 홍보 사업 - 교양사범림회를 통한 대중화 - 대학교과목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 수원학 강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개발 - 전문기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년 시민문화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2019 년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학' 교양 강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대상 지역학 과정 - 지역학 연구자 양성과정 - 역사교재 제작

센터명	제주연구센터	부산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	서울학연구소	경기학센터
상위기관	제주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립 공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기문화재단
이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이카이브 사업 진행 - 규모 약 51,000 건 - 별도 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학 정보자료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 사업 진행 - 연구논문목록 DB(자료 제목 편람) 423 페이지 - 별도 페이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 사업 진행 - 규모 약 70,000 여 건 - 별도 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 사업 중단 - 정라본 기준 3388 건 게시되어있으나 접근이 불가 - 별도 페이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
주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 면에서 접근성 뛰어난 DB 구축(오픈 이카이브 운영)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센터 내부적 연구 수행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구 발전이 많음 -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제주어 연구와 시민 친화적 제주어상당실 운영,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 등이 특색 -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 및 종류의 기관과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예산 지원 축소로 현재 전담직원이 없으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자 위주가 아닌 시민친화적 접근으로써 '복근서트'라는 행사를 통해 부산학 대중화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 연구가 매년 발간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카이브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 큰 테크와 시켜 VR, 웹툰 등으로 생산하여 이카이브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음 - 지역 자료에 위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도를 통한 이카이브 자료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 후보지 「서울학 연구」가 매년 발간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물적 지원과 대학의 물적, 인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 1993년부터 오랜 기간동안 서울학 연구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음 - 최근 평양학 연구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경기학 연구센터에서 경기학 센터로 명칭 변경 : 연구와 조사기능에서 경기학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사업 강화 - 교육사업이 구체적이며 다양한 - 센터 고유의 연구가 활발해 연구 발전이 많음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지역별 지역학 센터 현황과 연구 및 아카이빙, 사업에서 모범적으로 지역학센터를 운영하고 6개 센터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학센터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산하 기관, 지역대학 부설 기관, 문화 재단 등 지역산하 기관, 그 외 민간단체 운영 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영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은 충북연구원에서 1999년 충북학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학 전담기관들이 설립되었으며, 최근 창원학연구센터(2020년), 대전세종학연구센터(2021년)가 설립되었다.

둘째, 지역학센터 수행인력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많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광범위한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와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인력이 15명으로 많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학연구소는 7명,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학연구센터는 연구원 2명, 주임1명, 위촉연구원 3명으로 총 6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부산학연구센터의 경우 외부지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부산연구원 직원 12명인 겸직하고 있다. 고양학센터의 경우에도 고양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관들과 같이 전담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학센터의 2021년 예산은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산연구원의 경우 약 1억원이며 그 외 기관은 4~5억 정도이고 제주연구원은 16억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특히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공주시에서 출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씩 총 12억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양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책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앞서 살펴본 지역학 센터의 경우 대부분 독립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학 출판서적 보관 및 시민참여 사업 및 교육을 위해 독립 공간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학센터에서 지역학 연구 외 주요사업으로 지역학 연구지원사업, 아카이빙 구축,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강좌 및 교재를 제작, 발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술지를 발행하면서 지역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최근 서울학-평양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남북교류에 관한 지평을 확장하고 있으며 제주학센터의 경우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제주어 연구와 시민 친화적 제주어 상담실 운영, 제주어 구술 자료집 발간 등 특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제주학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특히 오픈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공주학연구원의 경우 아카이브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를 콘텐츠화 시켜, VR, 웹툰 등으로 생산하여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학연구센터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채록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학센터의 역할 중 아카이빙 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위 기관들이 아카이빙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고양시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고양학 분야의 모든 자료와 연구를 총망라하는 ‘고양학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과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학연구센터는 2020년 연구와 조사기능에서 경기학 진흥을 위한 다각화와 경기학 진흥을 위한 사업 강화를 위하여 경기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고양시에는 고양문화원에서 2020년 고양문화원 부설 고양학 연구소가 있으며 고양학 관련 출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에서는 고양학 연구소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양학 연구 뿐 아니라 고양학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아카이브 구축, 발간사업, 학술연구 지원 및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고양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고양학 발전방안

제1절 고양학 연구 발전방안

제2절 고양학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절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제절 고양학 연구 발전방안

본 연구는 지역학 관련 연구 동향 및 고양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지역학 센터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고양학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양학 발전방안은 고양학 연구 발전방안, 고양학 활성화 방안, 고양학센터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그 중 고양학 연구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양학 연구집중 분야

고양학 연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양학센터 자문위원 13명을 대상으로 고양학 연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고양학 연구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의약학 순서로 우선순위가 제시되었다. 각 학문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

고양학은 고양지역을 새롭게 또는 다시 바라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적 성찰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고려말 최영장군, 행주대첩의 권율장군,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 등 인물에 대한 연구, 고양시의 역사, 문화 등 민속학적 연구와 삶에 대한 고양시민의 철학을 정체성으로 승화하기 위해 인문학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고양시의 변화와 발전, 성장의 요인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향토사학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관점이 필요하며 자족도시 실현과 고양학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을 위해 사회과학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이해하기 위해 사회과학 자료수집 및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 체육학

최근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을 아우르는 K-콘텐츠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 향후 미래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문화예술 플랫폼 등 연구 성과 시민과의 공유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술·체육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자연과학

고양시의 자연환경, 지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및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연과학 연구가 필요하다.

5) 공학

생태계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발전 이론과 고양학이 궤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학, 산업 공학 등 도시발전의 이론과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농수해양학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사가 청동기가 아닌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와지 벼씨, 넉넉한 한강물을 고양땅 전체로 공급해 주는 이가순 수로, 고양의 마지막 곡창지대이자 농경문화의 발원지 송포평야, 행주들판, 고양시의 화훼와 원예,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 한강 하구 기수역 등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원들에 대한 농수해양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 지역 편중 개선

위 고양학센터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양학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에 대한 연구의 집중이 필요하며 더불어 자연과학, 농수해양학, 공학, 의약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양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양학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인문학 17.6%, 공학 16.4% 분야 연구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 농수

해양학, 예술·체육학은 각각 5% 미만으로 저조하여 고양학 연구가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 특정영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양학 연구의 대부분은 일산동·서구와 덕양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정지역에 대한 연구로는 이 외 1기 신도시 지역이었던 일산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고 덕양 지역 연구는 적어 두 지역의 연구량이 28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역에 대한 고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고양학 연구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주로 사회과학, 공학, 문화 예술학 분야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 인문학, 의약학, 농수해양학의 경우 초빙 연구원 채용 또는 외부 연구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분야의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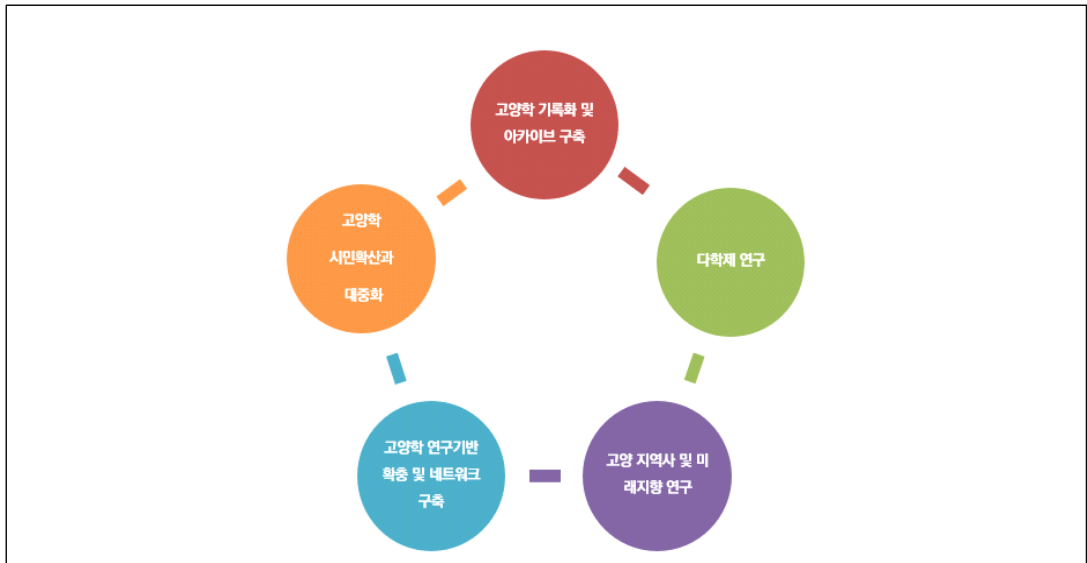
3.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간 연구 활성화

고양학 연구동향 분석 결과 지역의 총체성을 밝히는 학제적, 종합적 연구에 대해 학술사이트상 분류기준이 없고 실제 학제간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학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므로 향토사를 통한 정체성 연구와 더불어 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도시계획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와 지역발전 전략 및 미래상 연구 등 거시적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민간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다변화와 그를 위한 연구 주체들 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고양학센터는 시정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서 고양학의 학제적이며 융복합적 발전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고양학 활성화 방안

고양시는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상징성 면에서 독특한 성격과 위상을 지니는 지역이지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여건상 그 성격과 위상이 현 주민들의 지역의식과 정체성 형성으로 연결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양학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다학제 연구,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고양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고양학 시민확산과 대중화로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1] 고양학 발전방안



1.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소중한 지역 관련 사료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굴이 어렵고 소실 가능성도 높으며 자료 구축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료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랜 고양시의 역사 관련 자료 뿐 아니라 근현대에 관한 조사 기록도 필요하다. 고양시는 1989년 1기 신도시 개발 정책 발표 이후 일산신도기가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3기 창릉신도시 개발 발표가 있었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일산신도시 개발 지역의 조사 기록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은 지역적으로 전통생물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므로 지역의 생태환경과 생물 다양성 자료 등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광범위한 영역의 고양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우선 고양시 지역의 도서관, 연구기관, 국가정보시설로부터 각종 형태의 고양시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오랜 기간 동안 향촌 사회활동을 하면서 고양시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 접촉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존하는 문헌사료 뿐 아니라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근현대의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기록기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양학’의 범주에 포괄되는 각종 자료와 연구가 여러 곳에 산재하며, 일부는 접근 자체가 수월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고양학과 관련하여 수집된 수많은 자료는 한 곳에 모아 집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기 지역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원 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던 제주학연구센터, 공주학연구원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서비스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도 수집되어 온 고양학 관련 자료와 연구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 할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료들을 DB화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연구자나 일반인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고양시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다학제적 연구

지금까지 지역학은 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만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정신과 가치를 발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역학은 역사, 교육,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도시, 환경 등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총망라한 융합적,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양학 총서 발간 및 고양학의 체계화를 위한 학술지 발간 그리고 고양학 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3. 과거, 현재에 기반한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지역학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 설계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민속, 지명유래, 전설, 설화, 인물, 역사 등 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연구와 더불어 미래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미래지향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양시의 주민 생활과 지역 문화의 변천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날 지역학이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 향토사도 학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향토사가 여전히 인물, 가문 위주의 기록에 편중되어 있고, 그 고장 출신에 의한 연구나 과다한 애향심으로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족하며 중앙사와 행정 권력에 종속된 공생 관계로 지역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이동준, 2021). 따라서 고양학은 기존의 토대 자료를 잘 활용하되, 이것이 구축되었던 당시로서는 불가피하였던 시대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양학 연구는 지역 향토사를 비롯하여 향토사에 대한 학술적 재구성 그리고

정책적 제언이 가능한 고양시에 대한 현재학과 미래학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고양시는 600년의 역사에서 지명뿐 아니라 그 공간적 범위 역시 잦은 변화를 겪었다. 고양학은 현재의 고양시의 공간적 범위 뿐 아니라 접경지역, 한강 인접 지역으로서 문화권으로서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4.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지역학은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지역학 연구자들의 애향심과 의지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고양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고양학센터가 체계적 지역학 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지역학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지역학이 확립되는 과정에는 상위 기관의 출자·출연과 그 연장선에서 연구 기관 내 전담 상근 연구자 유무가 지역학 연구소 및 지역학 진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양학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와 이를 지원하는 고양시의 지역학 발전에 대한 공동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양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고양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양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대학 및 연구소,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원, 박물관, 연구소, 기업, 민간협의회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고양학 시민 참여와 대중화

고양시민이 고양시의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정주의식을 높이며 서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고양학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고양시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점 이수가 가능한 ‘고양학’ 강좌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기관과 연계, 지역내 기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양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지역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학 연구성과물들을 공동 향유하고, 시민들에게 고양학의 주제들을 공모하며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주민이 기록 생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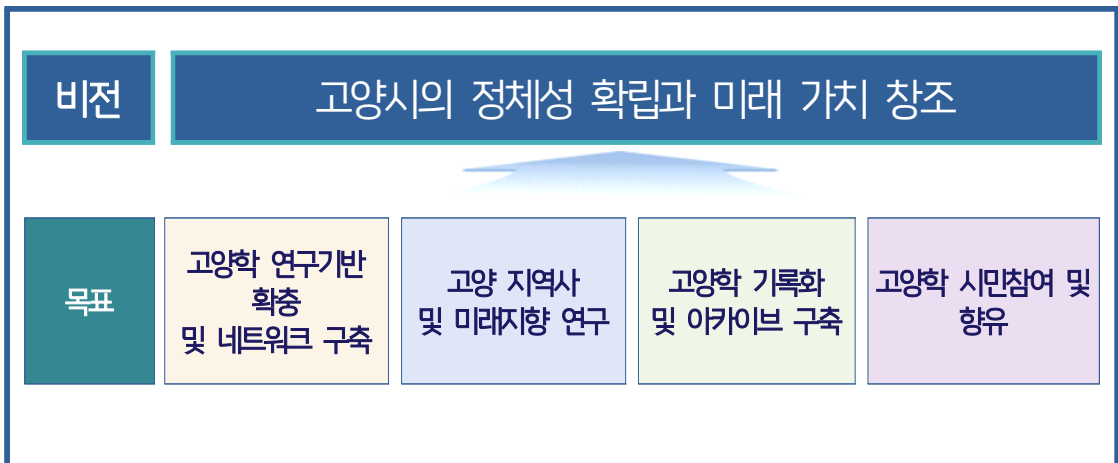
제3절 고양학센터 발전방안

1. 고양학센터 비전과 목표

지금까지 고양학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고양학 연구의 중심점이 부재했고 고양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축적도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고양학 발전방안을 위한 핵심역할을 고양학센터가 중심점이 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고양학센터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다.

[그림 5-2] 고양학센터 비전과 목표



2. 고양학센터의 목표 및 추진전략

고양학센터의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1) 목표 1.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고양학센터 발전 위해서는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고양학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전담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고양학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고양학 신진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고양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객원 연구원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양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연금에 예산을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개 지자체에서 지역학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고양시도 고양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양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양시 대학 및 연구소, 전문연구자, 향토사학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결집하고 문화원, 박물관, 연구소, 기업, 민간협회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목표 2. 고양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

고양학센터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학 연구가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 그리고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분과학문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학제적 교류와 통합적인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즉, 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 연구, 인문,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 체육학 등 고양시와 관련된 다방면의 연구와 이 분과학문들을 융합한 다학제, 융합형 미래지향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학과 인천학의 경우 부산학과 인천학을 다루는 학술지가 창간된 이래로 연구량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양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위해 학술지 발간 및 연구지원 공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목표 3.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고양학 분야의 모든 자료와 연구를 총망라하는 고양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고양학 센터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 마을조사, 구술채록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뿌리를 찾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역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시사자료 수집과 편찬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자료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고양학 자료 DB화, 고양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 작업들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민기록가 양성도 필요한 과제이다.

4) 목표 4. 고양학 시민참여 및 향유

고양학의 시민참여 및 향유를 위해서는 현재 중부대, 항공대와 함께 고양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대학 연계 고양학 강좌를 동국대, 농협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양학센터 차원에서 고양학의 학문적 성과에 근거해 교재로 활용가능한 개론서를 제작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학 강좌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패널리스트 및 시민들이 지역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답사 프로그램 운영, 고양학 포럼 및 세미나 운영, 고양학 영상채널, 소식지 발간 등도 시민참여 및 향유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이 외 고양학 홈페이지 구축, 출판 문화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표 5-1] 고양학센터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추진전략
<p>목표 1 고양학 연구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p>	<p>전임인력 및 예산확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참여 강화 고양학 신진 전문인력 양성 및 객원연구원 제도 도입 고양학센터 운영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국가 또는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 적극 참여 고양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원, 박물관, 민간단체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추진</p>
<p>목표 2 고양 지역사 및 미래지향 연구</p>	<p>고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 연구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 농수해양학, 예술 체육학 등 다방면의 연구 다학제, 융합형 미래지향 연구 지역고유의 창조적 문화컨텐츠 개발 고양학 총서 발간 고양학 체계화를 위한 학술지 발간 고양학 연구논문 지원</p>
<p>목표 3 고양학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p>	<p>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시사자료 수집과 편찬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고양학 자료 DB화 고양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시민기록가 양성</p>
<p>목표4 고양학 시민참여 및 향유</p>	<p>대학연계 고양학 교양강좌 개좌: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 농협대 고양학 교재 '고양학 개론'서 발간 초, 중, 고 및 시민교육 강좌 운영 시민패널제도 및 지역콘텐츠 제작 참여 시민답사 프로그램 운영 포럼 및 세미나 운영 고양학 영상채널-고양학 TV운영 고양학 소식지 발간 고양학 홈페이지 구축 고양학 연구 출판과 문화사업을 연결</p>

3. 고양학센터 5개년 로드맵

이상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에 있어 향후 고양학센터 5개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5-3] 고양학센터 5개년 로드맵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석규(1994). “서울학 연구방법 시론-역사학의 관점에서.” 서울학 연구총서, 1
- 고순영(2020). “공주 로컬리티 확립과 연구를 위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
- 공종구(2015).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 강좌<군산학(3)>.”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 김기현·김영춘(2018). “지역 애착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3)
- 김민영(2016). “항구도시의 지역학 발전과 ‘군산학(群山學)’의 활성화 방향.” 한국도시학회, Vol.28. No.4
- 김영일(2012).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27(1)
- 김태영·이은영(2020). “경남학 연구동향 및 정립방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2020-02
-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7-103
- 노영순·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순덕(2012).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37: 1-25.
- 박승희(2017). “대구시사 편찬의 방향과 생활사구술사 구성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16(2)
- 박진한·남상욱·이호상(2016)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3)
- 송인호·장지연(2011). “서울학연구 동향.” 서울학연구, 42: 314-25.
- 안두순(1994).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서울학 연구총서, 1
- 양기근·강창민·양덕순(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권제2호
- 연준모(2019). “강릉학의 연구 동향 및 지식 구조 탐색 -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도시인문학연구 11권1호
- 오영교(2004). “원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릉학보 1, 15-34
- 오영교(2019).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 연구방법론의 모방과 변주.” 지방사외지방문화, 22
- 오재환(2011).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BDI 정책포커스(111)
- 오재환(2012). “부산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제주도연구, 37: 55-85
- 윤종준(2014). “경기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경기지역학 현황과 과제.”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이성호(2021). “창원 지역연구의 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KCI 등록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제1호
- 이재민 외(2020). “지역학으로서의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 전상운(1994). “서울학 연구와 발전방향.” 서울학연구, (1)
-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 164, 62-64
- 정정숙(2014).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4-4
- 정지연(2019).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인문과학연구, 62, 29-53
- 조재인(2021). “지역 연구에 대한 계량정보적 분석-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보학회지, 55(1)
-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 황태목(2017). “군산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8.1

[웹페이지]

제주학연구센터(www.jst.re.kr)

부산연구원(www.bdi.re.kr)

수원시정연구원(suwon.re.kr)

공주학연구원(igs.kongju.ac.kr)

서울학연구소(seoulstudies.uos.ac.kr)

경기문화재단(www.ggcf.kr)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gional Stud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Goyang Regional Studies

Junghwa Moon* Eunjin Kim**

This study aims to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regional studies and Goyang studies, and to derive a development plan of Goyang stud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major regional center manage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attributes of regional studies, legislation and ordinances related to regional studies were examined. Second, the concept and the research trend of regional studies were examined. Third, the concept, the necessity, and the research trend of Goyang regional studies were analyzed. Fourth, the operating status of major domestic research centers of regional studies was analyzed. Fifth, the development plan of Goyang regional studies was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Regional studies analyze the past and present of a region through comprehensive 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targeting a specific region based on administrative districts or culturally common identity, and it can be defined as a study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gion. (2) The legislation related to regional studies includes laws related to culture

* Director of Goyang Regional Studies Cent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gional Studies Cent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and education. Ordinances related to regional studies include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gional studies research center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And ordinances regarding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regional studies have been enacted in 10 local governments. (3) If we look at the regional studies research trends of the region, in most regions, regional studies research is increasing as years go by, and while there is a lot of research done in the areas of humanities or social sciences, research in the areas of engineering, medicine, natural scienc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has been insufficient. Moreover, there is a tendency that there are many microscopic studies and few complicated and comprehensive macroscopic studies. (4) Goyang regional studies covers Goyang city and areas related to Goyang city and spaces related to people. And it establishes the identity of Goyang City through a wide range of research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humanities, sociology, and natural sciences, as well as interdisciplinary and comprehensive research in these fields. It can also be defined as studies that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5) The necessity of Goyang regional studies is to secure local identity, increase local attachment (settlemen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people, strengthen local community networking, perform the central function of history compilation (passing down to the next generation), promote local communities, respond to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o create future values. (6) Analyzing the research trend of Goyang regional studies provides that it increased rapidly with the promotion of Goyang City in the 1990s, and while maintaining the increase in the 2000s, it increased rapidly with the opening of the Goyang research institute. As for research fields, social sciences account for 53.2% of the total, followed by the humanities with 17.6%, engineering with 16.4%, and medicine, agriculture and marine science, fine arts, physical education with less than 5% each. This shows that the studies related to Goyang regional studies are somewhat unequally distributed towards a specific area. Also,

the academ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is lacking, and it gives too much importance toward the study of Ilsan compared to Deogyang. (7) It analyz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studies center, the manpower arrangement, the budget, the space utilization, the research support project, the academic conference, the education project, and the archive, et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ies have been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research of Goyang regional studies, the development plan for Goyang regional studies, and the operation plan for the Goyang research center were put together respectively.

First, as a development plan for the research of Goyang regional studies, (1) the improvement of research field and research area concentration and (2) the school system that reveals the totality of the region were suggested for the invigoration of research.

Second, as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Goyang regional studies, (1) the documentation and archive construction of Goyang regional studies, (2) multidisciplinary research, (3) Goyang local history and future-oriented research, (4) the expansion of Goyang regional studies research base and network establishment, (5) the spread of Goyang regional studies to people and popularization were suggested.

Third, as for the operation plan of the Goyang research center, detailed contents according to 4 goals of the Goyang regional studies development plan were presented under the vision of establishing Goyang's identity and creating future values. Furthermore, a five-year roadmap for the Goyang research center, which produced the necessary promotion works for each stage, divided into the establishment phase, the leaping phase, and the stabilization phase of the Goyang research center was suggested.